

I

빠른 판단으로 승부하라

1. 도전정신과 용기는 호연처기에서 나온다
2. 긍정하게 나누는 것이 의리의 근본이다
3. '사람 부자'가 '돈 부자'보다 낫다
4. 두둑한 배짱은 떳떳한 명분에서 나온다
5.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6. 일단 결정하고 나면 결코 망설이지 않는다
7. 달리는 자전거는 쓰리지지 않는다
8. 전성한 리더십은 정의(正義)에서 나온다
9.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강한 힘이 나온다
10. 빠를 깎는 고통이야말로 성장의 밑거름이다
11. 궁지에 몰린 적은 공격하지 않는다
12. 휴식은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다
13. 결단은 칼처럼, 행동은 화살처럼!
14.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15. 꿈은 나무처럼 자란다
16. 은혜는 되로 주면 말로 돌아온다

はる機械に正をつよめる

01 도전정신과 용기는 호연지기에서 나온다

- 출생과 성장

나 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크게 자라고,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크게 될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데가 있다. ‘호연지기(浩然之氣)’ 야말로 사람이 어린 시절에 갖추어야 할 큰 덕목이다.

‘호연지기’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옛날 중국 초(楚)나라의 항우(項羽)다. 그의 집안은 초나라에서 대대로 장군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었다.

어린 시절 항우는 삼촌에게 글공부와 검술을 배웠다. 그러나 그는 글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검술을 익히는 데도 시큰둥하기만 했다.

삼촌이 글공부와 검술 배우기를 게을리 한다고 면박을 주자 항우가 말했다.

“삼촌! 염려하지 마세요. 글공부 따위는 제 이름 자나 적을 줄 알면 충분합니다. 검술도 결국 한 사람의 적을 상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왕 배울 바에야 만인을 상대로 싸우는 법을 익혀야지요.”

이와 같은 항우의 말에, 삼촌은 병법을 가르쳐 보기로 하였다. 그랬더니 그는 열심히 병법을 익혔다.

마침 그 무렵, 진나라의 시황제가 전국을 순행하였다. 항우는 삼촌과 함께 그 화려한 황제의 행렬을 보러 갔다.

“머지 않아 내가 저놈의 자리를 차지하리라….”

항우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삼촌은 당황하여 얼른 조카의 입을 틀어막았다.

“함부로 지껄이지 마라. 우리 일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어!”

삼촌은 우선 조카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이렇게 말했지만, 어린 항우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선 그 포부가 대단했던 것이다.

이같은 항우의 호연지기는 두 가지 바탕에 근거한다. 하나는 그가 대대로

▼ 소년 최종건이 친구들과 어울려 물놀이를 하던 서호천. 수량이 풍부하고 평야지대를 휘돌아 흐르는 하천 덕분에 벌말은 해마다 풍년이 들어 인근에서도 부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장군을 지낸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고, 다른 하니는 삼촌처럼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SK의 창업자 최종건(崔鍾建)은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두 가지 바탕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부농인 아버지 최학배(崔學培) 공(公)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한학자인 할아버지 최두혁(崔斗赫) 옹(翁)의 보살핌 속에서 호연지기를 키우며 자라났던 것이다.

최종건이 태어난 곳은 입지적 조건으로 볼 때도, 그가 나중에 커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되었다.

수원(水原) 서쪽에는 서호(西湖)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물은 서둔촌(西屯村)과 벌말(坪洞)을 끼고 넓은 벌판을 휘돌아 남쪽으로 흘러간다. 이 서호천은 수량이 매우 풍부해서, 그 물길을 따라 양편으로 펼쳐진 들녘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가뭄 걱정을 안 하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니 자연 인



▼ 엄하지만 큰아들에 대한 정이
남달랐던 아버지 최학배 공과
어머니 이동대 여사.

근 마을 농가들은 부농이 되었고, 사람들은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최종건이 태어난 곳은 바로 '별말' 인데, 말 그대로 '별관 가운데 있는 마을' 을 뜻한다. 행정구역상 한자어 표기로 '평동(坪洞)' 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옛부터 '부자 마을'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집집마다 농사를 많이 짓는다.



원래 최종건의 아버지 최학배 공의 고향은 수원에서 좀 떨어진 팔탄면(八灘面) 해창리(海蒼里)였다. 그는 그곳에서 23대째 뿌리를 내리며 살아온 수성(隨城) 최씨(崔氏) 일가의 중심 인물

이었다. 당시 기호유생(畿湖儒生) 최두혁 옹의 독자로 태어난 그는 일찍이 서당에서 한학(漢學)을 수학했다. 그리고 21세 때 전주(全州) 이씨(李氏)인 이동대(李同大) 여사와 결혼한 후 벌말로 이주하여 가계(家系)를 이어나갔다.

사실 최학배 공이 고향인 해창리에 살 때만 해도 집안 형편이 그리 풍족한 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고자 이주해온 곳이 바로 벌말이었던 것이다. 당시 벌말 삼거리는 빨안과 남양 쪽에서 수원으로 통하는 길목이자 장터 이기도 하였다. 해창리에 비하면 벌말은 번화가에 속했던 셈이다.

최학배 공은 벌말에 정착하면서 생계를 위하여 나무장사를 시작하였다. 마침 그에게는 고향에서부터 부리던 말과 수레가 있었는데, 나무전에서 땔감을 사다가 수원 중심가에 내다 파는 데는 그것이 아주 용이하게 사용되었다. 말과

수레는 그가 재산을 모으는 유일한 밑천이었던 셈이다.

워낙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났던 최학배 공은 나무장사로 돈을 벌어 대성상회(大成商會)를 차리고, 그때부터 수원 잠업시험장에 벗짚과 왕겨를 납품하였다. 또한 인천 미곡취인소(米穀取引所)에 쌀을 공급하면서 돈을 착실하게 모았으며, 목돈이 되면 그것으로 차근차근 농토를 사들였다.

그렇게 사들인 농토가 불과 몇 년이 흐르는 사이에 벌말에서 '알짜 부자' 소리를 들을 만큼 불어났다. 당시 대부분의 농가는 남의 땅을 빌어 짓는 소작농이 7할 이상이었는데, 최학배 공은 60마지기가 넘는 논밭을 가진 자작농이었다.

그런데 그 때까지도 최학배 공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29세의 나이에 딸만 둘을 두었던 것이다. 독자로 태어난 그는 아들을 낳는 것이 소원이었다. 첫딸 낳고 아들 낳기는 쉬워도 딸만 둘 낳고 아들 낳기는 어렵다는 속설이 있었지만, 1926년 1월 30일 마침내 첫아들을 낳았다.

최학배 공은 너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으며, 그 첫아들의 이름을 '종건'이라고 지었다. 자식으로서는 위로 두 딸 최양분(崔養分), 최양순(崔養順) 다음으로 세 번째 아이였던 셈이다.

어린 시절, 최종건은 아버지보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자라났다. 그는 개구쟁이였지만 할아버지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손이 귀한 집안의 장손이었던 것이다.

원래 개구쟁이는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찾아가며 일을 저지르는 법이다. 최종건은 이미 3~4세 무렵부터 이웃집 호박에 말뚝박는 일을 다반사로 하였다. 친구들에게 말아놓은 명석 구멍으로 들어다 보게 하고는 반대편에서 새총을 쏘는 위험한 장난도 서슴지 않았다. 한창 팽이치기에 몰두할 때는 안마당

큰누이가 업어서 키운 아이

최 총건은 어린 시절 다섯 살이 더 많은 큰누이 최양분의 등에 업혀서 크다시 피 했다. 당시 그의 집안은 부농이긴 했지만 가정부를 둘 정도로 집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 어른들이 모두 일터로 나가고 나면 최양분이 어린 최종건을 업고 집 안팎을 돌아다니며 놀았다. 최양분도 겨우 10세 안팎의 나이였기 때문에 마을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해서 동생을 업고서 공기놀이도 하고 줄넘기도 했다.

최종건은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던 아이 시절에도 한시도 기만히 있지를 못하였다. 눈밖에만 벗어났다 하면 뭔가 일을 저지르고야 밀았다. 최양분은 어린 동생을 등에 업어 키울 때 두 번이나 큰 사건을 겪었다.

하루는 최양분이 등에 최종건을 업고 공기놀이를 하는데, 아이가 자꾸만 청얼대자 마당에서 자유롭게 놀도록 땅에 내려주었다. 한참 공기놀이를 하다 둘러보니 아이가 없었다.

공기를 팽개치고 일어선 최양분은 마당을 가로질러 뒤꼍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마침 뒤꼍 오줌독에 아이가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급히 아이를 구해 목욕을 시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또 한번은 최양분이 최종건을 등에 업고 있는데, 땅에 내리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등에서 미끄러져 막 꺼져가는 모탁불의 솟덩어리 위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 때 엉덩이에 큰 화상을 입어 흉터가 남게 되었다.

최양분은 어린 동생 때문에 두 번이나 어른들에게 큰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장남이 그런 큰 일을 당했으니 집안 전체가 들썩일 만도 한 일이었다.

〈도움말 | 최양분〉

빨래줄에 널어 놓은 행주치마 끈이 남아나질 않았다. 그것을 끊어다 팽이채를 만드는 데 썼기 때문이다.

최종건은 언제나 왕팽이를 가지고 다녔다. 그는 다른 아이들 것보다 자신의 팽이가 커야만 직성이 풀렸다. 어쩌다 다른 아이들이 큰 팽이를 가지고 나오면, 그 다음 날 반드시 그는 집에서 일하는 머슴을 졸라 더 큰 팽이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 놀았다. 이처럼 왕팽이를 돌리려면 팽이채가 튼튼해야만 했다. 그러나 보니 빨래로 널어 놓은 행주치마 끈처럼 팽이채로 안성맞춤인 것도 없었다.

최학배 공은 그런 아들을 야단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녀석! 말썽만 피우고 다니는구나. 이 다음에 커서 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던 최종건의 할아버지 최두혁 옹은 결결 웃으며 손자 편을 들었다.

“놔 두거라. 애들은 그저 자유롭게 커야 하느니라.”

이처럼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감싸고 돌기 때문에, 최학배 공은 말썽꾸러기 최종건에게 따끔한 매 한번 제대로 들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학배 공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너무 종건이 녀석을 감싸고 돌면 벼룩이 나빠집니다. 잘못을 했을 땐 종아리를 때리고 야단도 치셔야지요.”

“허허, 벼룩은 매로 가르치는 게 아니란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자주 매를 들면 공연히 어린애의 호연지기만 꺾어 놓는 법이지.”

최두혁 옹은 손자를 자유분방하게 키워 호연지기를 길러 주고 싶었던 것이다. 사내란 모름지기 호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한학자였던 그는 사마천의 〈사기〉

(史記)를 즐겨 읽었으며, 특히 그 책에 나오는 항우의 기개에 흠뻑 취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손자 최종건에게 진나라 시황제의 행차를 보고 소년 항우가 “며지않아 내가 저놈의 자리를 차지하리라”던 이야기를 즐겨 들려 주었다.

“꿈은 항우처럼 크게 가질수록 좋은 것이다. 사내는 좀스럽게 굴면 못쓴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큰 일을 도모하도록 애쓰거라. 알겠느냐?”

이 같은 최두혁 옹의 ‘호연지기’는 어린 최종건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 원래 성격이 개구쟁이이기도 했지만, 할아버지의 보살핌으로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매우 용기있는 아이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자신이 한번 결심한 일이라면 꼭 해내고야 마는 도전 정신이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는 체질화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호연지기는 도전정신과 용기의 떡잎이 자라나는 토양과도 같다. 그래서 최종건은 할아버지 최두혁 옹의 유교정신과 아버지 최학배 공의 재력이 뒷받침된 든든한 배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즉 그에게 있어서는 정신과 물질 두 가지 측면이 모두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한 좋은 토양이 되었던 것이다.

❖ 담연의 성공철학

- 자유분방한 사고 속에서 큰 꿈이 싹튼다. 그리고 그 꿈은 클수록 좋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의리의 근본이다

– 병정놀이와 군자금

기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혼자서는 절대로 기업을 일으킬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기업이다. 이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의리’다.

사업가 최종건이 생명처럼 생각해 온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다. 그 의리는 서로 공평하게 나눌 때 형성된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사업은 같이 열심히 일을 하여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가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고향인 벌말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였고, 같이 일을 하여 보다 잘 살아 보자는 데서 출발했다. 그런 생각 저변에는 어린 시절 같이 자라난 친구들에 대한 의리가 깔려 있었다.

최종건의 이러한 의리는 유교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학이다. 인격도 야에 있어서 한학만큼 좋은 학문도 없었던 것이다. 원래 기호유생으로 잘 알려진 최두혁 옹은 손자 최종건에게 한문을 가르치기로 했다.

“신학문도 좋지만 인격도야에는 한학이 최고다. 이웃에서 방 선생이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친다고 하니, 우리 종건이도 거기 보내도록 하거라.”

최두혁 옹이 말했다. 최학배 공도 아버지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매일 말썽만 피우고 다니는 것보다 일찌감치 한문 공부를 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최종건은 6세 때부터 이웃에 사는 방(方) 선생에게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 방 선생은 마을의 사랑방 하나를 얻어,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고만고만한 어린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있었다. 정식 서당은 아니었고, 그냥 ‘글방’ 수준이었다고 하는 편이 옳았다.

최종건은 이 동네 글방에 다니면서 방 선생에게 〈천자문(千字文)〉, 〈동몽 선습(童蒙先習)〉, 〈명심보감(明心寶鑑)〉 등을 배웠다. 그는 머리가 좋아서 한번 들으면 책을 보지 않고도 술술 천자문을 외웠다. 눈을 지그시 감고 어깨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하늘 천 때 지...”를 읊어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문 공부보다 같이 배우는 아이들과 병정놀이를 하는 것이 더 즐거웠다.

아이들 가운데서 최종건은 언제나 대장이었으며, 어느덧 ‘별말의 골목대장’이 그의 별명이 되어버렸다. 한문 공부가 끝나기 무섭게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야산으로 쏘다니며 병정놀이와 씨름을 즐겼다.

“야, 대장! 우리 병정놀이 하러 가자.”

한문 공부가 끝나고 나서 한 아이가 말하였다.

“잠깐, 병정놀이도 군자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최종건은 병정놀이를 하러 가기 전에 먼저 들르는 곳이 있었다. 바로 그의 집 바깥채에 있는 머슴들이 기거하는 방이었다. 농번기가 끝나고 일이 없는 겨울철이나 명절 때면 그 방에서 곧잘 투전꾼이 벌어지곤 하였다. 큰 돈을 놓고 하는 판은 아니었고 그저 심심하니까 술내기 판을 벌이는 것이었다.

투전꾼들은 대개가 부잣집에서 새경을 받고 일을 하는 머슴들이었다. 최종건의 집도 부농이어서 일손을 덜기 위해 머슴을 두고 있었는데, 마을 투전꾼들이 그 방으로 모여들곤 하였다.

아이들을 밖에 세워둔 채 최종건은 한창 투전이 벌어지고 있는 머슴 방으로 불쑥 뛰어들었다. 대개의 투전꾼들은 그가 들어온 이유를 알고 있었다. 투전을 할 때면 흔히 개평을 빼어두는데, 그 돈을 가지려 온 것이었다.

그러나 조금 야박한 투전꾼은 개평조차 없었다. 최종건이 여느 때처럼 개평을 달라고 손을 내밀면 대뜸 구박부터 하고 나서는 것이었다.

▼ 소년 최종건이 골목대장 노릇
을 하며 뛰어다녔던 일제 시대
의 수원읍내.

02

“너한테 줄 돈 없으니 썩 물러가거라.”

그런다고 물러설 최종건이 아니었다.

“엿 사 먹게 개평 좀 줘요.”

“이 녀석 봐라? 어린 녀석이 개평을 달라니?”

“나 혼자 먹으려는 게 아니란 말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거라구요.”

최종건은 아예 투전판 한가운데로 가서 벌렁 드러누웠다.

이렇게 되면 투전꾼들도 더 이상 개평을 주지 않겠다고 베틸 수가 없었다.

그들도 최종건의 황소 고집만큼은 꺾지를 못했던 것이다.

“개평을 줄테니, 어서 일어나거라.”

이 말을 듣기 무섭게 최종건은 벌떡 일어나 돈을 받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자, 가자!”

최종건은 아이들을 끌고 의기양양하게 서호천으로 향했다.

마을 뒤에는 서호천이 흐르고, 그 내를 건너면 야트막한 학교산이 있었다. 그 곳이 바로 벌말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학교산에는 뽕나무 밭이 많았고 바다에 잔디가 깔려 있어 전쟁놀이에 안성맞춤이었으며, 특히 씨름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다.

한참 놀이를 하다

보면 배가 고팠다. 그러면 최종건은 아이들을 이끌고 수원역으로 달려갔다. 벌말에서 10여 분 거리에 역전이 있었고, 그 곳에 가면 먹거



리가 많았다. 기차를 타고 오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밥도 팔고, 떡도 팔고, 사탕이며 과자도 팔았다.

투전꾼들에게서 개평으로 받은 돈을 최종건은 ‘군자금’이라고 불렀는데, 그 돈으로 그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 주었다. 군자금은 언제나 그 개인을 위한 일보다는 아이들 각자에게 공평하게 사용되었다. 무엇을 사든 똑같이 나누어 가졌던 것이다. 아이들 중 누군가가 욕심을 내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그는 용서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나이 대장부다. 언제나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

최종건의 말에 이의를 다는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의 주먹이 날아올까 두렵기도 했지만, 그가 하는 말이 전적으로 옳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최종건은 어려서부터 의리를 중요시하였다. 친구 간에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은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친구간에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야말로 의리의 근본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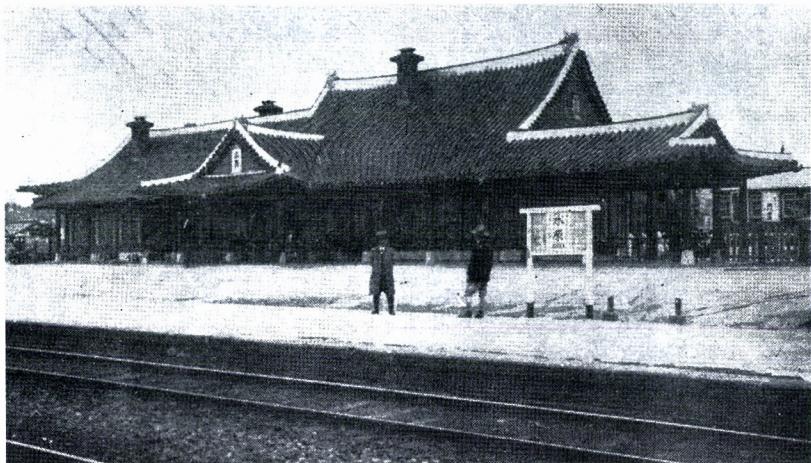
최종건은 〈명심보감〉에서 의(義)를 배웠다. ‘선의이후리자(先義而後利者)’, 즉 ‘의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 하라’는 순자(筭子)의 말을 그는 아주 좋 아했다.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을 그는 친구들과의 놀이에서도 지켰던 것이다.

언젠가 함박눈이 내리던 겨울날이었다. 최종건은 아이들과 함께 신바람이 나서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였다. 그렇게 한참 즐겁게 놀다 보면 배가 고프기 마련이다.

“내가 중국 호떡 사 줄테니 모두들 역전으로 가자!”

최종건은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서도 이렇게 호기를 부렸다.

▼ 소년 최종건이 투전꾼들에게
서 받은 이른바 '군자금'으로
아이들의 먹을 것을 사 주었던
당시의 수원역 전경. 수원역은
벌말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
었다.



"좋아! 역전으로 가자!"

아이들은 좋아서 박수를 치고 난리였다.

"잠깐만 기다려! 군자금을 마련해 올 테니."

최종건은 투전판이 벌어지고 있는 머슴 방으로 달려갔다.

"너 또 개평 얻으러 왔지? 이번에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투전꾼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아무리 폐를 써도 통하지 않자, 최종건은 일단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작
전상 후퇴였다.

투전꾼들이 판을 끝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였다.
신발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눈이 와서 맨발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그 때 최종건이 싱글벙글 웃으며 나타났다.

“종건이, 바로 네가 한 짓이로구나?”

투전꾼들이 입을 모아 소리쳤다.

최종건은 여전히 웃기만 하였다.

“어서 신발 갖고 와!”

“신발값 주세요. 그럼 찾아올게요.”

최종건은 기어코 투전꾼들에게서 돈을 받아 내고 나서야 숨겨 두었던 신발을 내주었다.

군자금이 생긴 최종건은 다시 아이들을 불러모아 휘파람을 불며 중국 호떡을 사 먹기 위해 수원 역전으로 달려갔다.

이처럼 최종건이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대장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힘이 좋아 싸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도 ‘의리’라는 덕목을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담연의 성공철학

- 의리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라.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동료가 생길 것이다.
- 리더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이득을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사람 부자’ 가 ‘돈 부자’ 보다 낫다

- 공부보다 친구가 좋아

이 세상에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이를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 기업을 일으키는 것도 사람이고, 그것을 키워서 많은 이득을 창출하는 것도 사람이다.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일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것이다.

최종건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사람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의 재산은 무엇보다 사람이었던 것이다.

친구들은 최종건을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따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였다. 그것이 선경직물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친구들이 최종건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은, 먼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이든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친구들에게 마음으로든 물질적인 것으로든 베풀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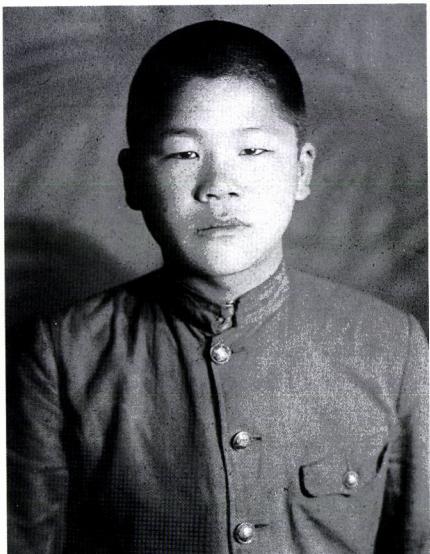
어린 시절 최종건은 공부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좋았다. 그는 눈을 감고도 천자문을 줄줄 외기는 했지만, 늘 딴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 한문 글자가 제대로 익혀지지 않았다. 8세가 지나 9세가 되도록 한문 공부에 큰 진전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서(四書)〉를 제대로 떼지도 못한 채 10세가 되어 뒤늦게 신풍소학교(新豐小學校)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최종건의 큰누이 최양분은 늦은 나이에 소학교에 들어갔다. 당시만 해도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안 보내거나 늦게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5세나 아래인 최종건과도 같은 시기에 소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물론 최양분은 최종건보다 학년이 높았다. 그래서 학교에 갈 때는 벌말에서 10여 리 떨어진 신풍소학교까지 어린 동생을 데리고 다녔다.

신풍소학교는 수원 남문에서 조금 떨어진 팔달산 아래 위치해 있었는데, 최종건은 학교에 갈 때도 큰길로 가는 법이 없었다. 논두렁으로 풀을 헤치며

▼ 신풍소학교 재학 시절 최종건
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소년이었다.



다니다가 도랑에 빠지기 일쑤였다. 그러면 물에 젖은 벼선을 누이 최양분에게로 훼 집어던졌다.

“길로 다니면 도랑에 빠지지 않을텐데, 왜 맨날 너는 논두렁으로 다니니?”

최양분은 매번 동생의 벼선을 챙기는 일에 짜증이 났다.

“내 맘이지.”

최종건은 누이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어느 날인가 최종건이 또 물에 젖은 벼선을 집어던졌을 때, 최양

분은 화가 나서 그것을 줍지 않고 그대로 학교로 갔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에게 된통 야단을 맞았다.

“광목 한 자에 십오 전이나 하는데 벼선을 버리고 오면 어떡하니?”

어머니는 물에 젖은 벼선을 아무 데로나 집어던진 최종건보다 오히려 그것을 챙기지 않은 최양분을 나무랐다.

최종건은 책보도 자신이 들고 다니는 법이 없었다. 마을 친구 중 한 명에게 들고 가게 한 후, 자신은 다른 아이들과 마구 장난을 치면서 학교로 가는 것이었다. 그는 도시락도 스스로 챙기지 않기 때문에 최양분이 들어다 주어야만 했다.

학교에 가면 최종건은 점심 때도 되기 전에 누이가 들어다 준 자신의 도시

락을 다 먹어치웠다. 그리고는 최양분의 교실로 찾아와 누이의 도시락까지 가지고 가 버리는 것이었다.

한번은 최양분이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책상 서랍 속에 있어야 할 도시락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네 도시락 아까 동생이 와서 가져가더라.”

최양분은 꼼짝없이 그날 점심을 굽을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 갈 때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최종건은 친구들과 구슬치기 놀이를 곧잘 즐겼다. 구슬치기뿐만 아니라 딱지치기, 딱통치기에도 명수였다. 그는 재주가 좋아서 구슬치기를 하면 친구들의 것을 거의 다 뺐다. 양쪽 주머니에 구슬이 가득 들어서 냅다 뛴박질을 할 때면 구슬 부딪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이처럼 최종건은 구슬치기를 하거나 다른 장난을 하기 위해 친구 한 명에게 책보를 맡기는 벌ogi이 있었다. 그러나 절대로 대가없이 조수 노릇을 시키지는 않았다. 그는 집에 돌아와 책보를 건네 받으면서, 그것을 들여다 준 친구에게 그 날 딴 구슬 중에서 한 주먹 들풉 덜어서 쥐어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런 최종건을 아주 잘 따랐다. 힘이 세어서 대장노릇을 하기 때문에 잘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친구들에게 무엇인가 배풀기를 좋아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엿장수를 만나면 최종건은 자신의 양은 도시락을 발로 찌그러뜨려 엿을 사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곤 집에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 학교 책상 서랍 속에 넣어 두었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 최종건이 어린 시절 꿈을 키웠던 신풍소학교의 현재 모습.
수원 남문 근처 팔달산의 아랫자락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집에서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다시 새 도시락을 사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인가 최종건은 마을 친구 하나가 말을 잘 듣지 않자 주먹을 한 방 날렸다. 그에게 얻어맞은 친구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친구는 최종건 부모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바쳤다.

“종건이가 일부러 도시락 찌그리뜨려서 엿 사먹었대요.”

그날 최종건은 아버지에게 된통 혼쭐이 났다.

이처럼 야단을 맞으면서도 최종건은 친구들에게 엿을 사 주기 위해 종종 도시락을 찌그리뜨렸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셋덩어리로 된 물건이 남아

나질 않았다. 물론 크게 야단맞을 일이었지만, 그의 집안은 새 도시락을 사 주는 데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넉넉한 편이었다.

사실 벌말에는 남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이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옛 하나 사먹을 돈도 없었던 것이다. 최종건은 그렇게 자기 집보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배풀기를 좋아했다. 그가 이렇게 배풀기를 즐겨하였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돈보다 사람을 좋아했다는 증거가 된다.

주변에 따르는 무리가 많은 사람은 부자다. 그런 의미에서 최종건은 어려서부터 이미 부자였다.

* 담연의 성공철학

- 진정한 리더는 '돈의 위력' 보다 '사람의 위력'을 믿는다.

두둑한 배짱은 떳떳한 명분에서 나온다

- 일본 경부 아들과의 싸움

사업은 배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최종건처럼 배짱이 있는 사업가도 드물다.

'배짱'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신도 없으면서 내세우는 배짱과, 뒤에 든든한 배경을 둔 배짱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대부분 실패하나 후자의 경우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최종건의 배짱은 후자에 속한다. 그의 배짱 뒤에는 뚜렷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배경은 바로 다름 아닌 뛰뛰한 명분이다.

최종건이 4학년 때의 일이었다. 당시 6학년에 다니던 일본인 학생 중에 무라야마 다케오(村山武雄)라는 아이가 있었다. 이 일본인 학생은 성질이 매우 난폭하였는데, 특히 조선인 학생들을 자주 괴롭혔다. 조선인 학생이 앞으로 지나가면 불러 세워서 건방지다며 트집을 잡아 뺨을 때리거나 끓어앉혀 놓고 발길로 무릎을 차고는 했다.

그러나 누구도 무라야마에게 야단을 치는 사람이 없었다. 선생님도 학부형도 눈치만 보기에도 바빴다. 왜냐하면 그 일본인 학생은 수원경찰서 경부(警部)의 아들이라 모두들 잔뜩 겁을 집어먹고만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인가는 벌말의 아이 하나가 무라야마에게 당했다.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 자식 혼 좀 나야겠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최종건은 불끈 주먹을 움켜쥐었다.

최종건은 방과 후 벌말 아이들과 함께 무라야마가 사는 동네인 매산정(梅山町)으로 달려갔다.

“종건아! 괜찮을까? 무라야마란 녀석은 일본 순사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같이 간 벌말 아이가 두려운 표정으로 말하였다.



“상관 없어! 잘못한 녀석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최종건은 불의를 보고는 못 참는 성격이었다.

“쉬잇! 저기 무라야마가 온다!”

무라야마에게 당한 적이 있던 벌말 아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 녀석이로군!”

매산정 골목 전봇대 뒤에 숨어 있던 최종건이 불쑥 골목길을 막아 서며 무라야마를 노려보았다.

“뭐야?”

휘파람을 불며 골목길로 접어들던 무라야마는 멈칫하였다.

“네가 무라야마냐?”

“그러는 넌 누구냐?”

“이 자식아! 나는 너를 혼내 주러 온 최종건이다. 네가 지나가는 우리 조선인 학생들을 자주 괴롭힌다면서?”

최종건은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다.

무라야마도 얼른 그 주먹을 피하며 최종건을 상대로 맞붙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어 싸웠다. 무라야마가 학년으로는 최종건보다 2년 빨랐지만 나이는 동갑이었다. 덩치도 비슷했으므로 한동안은 대등한 싸움처럼 보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 최종건이 다리를 걸어 무라야마를 넘어뜨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발로 무라야마의 가슴을 찍어 누른 최종건이 외쳤다.

“이 녀석! 너 앞으로도 우리 조선인 학생들을 괴롭힐래?”

그 때 전봇대 뒤에서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던 벌말 아이들이 달려나와 땅바닥에 드러누운 무라야마를 발길로 걷어차기 시작하였다. 일단 최종건은 뒤로 물러서서 팔짱을 낀 채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제 그쯤이면 됐다. 돌아가자!”

최종건은 벌말 아이들을 이끌고 재빠르게 매산정 골목을 벗어났다.

그 다음 날 아침 벌말은 발칵 뒤집혔다. 수원경찰서에서 순사들이 나와 최종건은 물론이고 싸움에 가담했던 벌말 아이들을 모두 잡아갔다.

“애들은 잘못이 없어요. 내가 무라야마를 때려눕혔어요.”

최종건이 순사를 앞으로 나서며 당당하게 말했다.

“너 아주 당돌한 녀석이구나!”

일본 순사가 지휘봉으로 최종건의 이마를 때리며 말했다.

“제가 무라야마를 때린 건, 죄도 없는데 그 녀석이 우리 벌말 아이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최종건은 기죽지 않고 배짱 있게 순사를 향해 대들었다. 배짱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명분이 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어린 그가 어른인 일본 순사에게 배짱 있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떳떳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니, 이 녀석이 그래도?”

“무라야마가 일본 경부의 아들이라고 선생님도 학부형도 모두 야단치기를 꺼려해요. 그러나 아무 죄도 없는 학생을 괴롭히는 녀석은 누구에겐가 단단히 혼이 나야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같은 최종건의 조리있는 말에 일본 순사는 그만 말문이 막혀 버렸다.

조사해본 결과 먼저 잘못을 저지른 쪽이 무라야마였으므로, 그 사건은 일단 그것으로 무마되었다. 최종건과 함께 수원경찰서에 붙잡혀 간 벌말 아이들은 모두 훈방 조치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라야마와 싸워서 피해를 본 것은 최종건이었다. 마침 최종건의 담임 선생은 일본인이었는데, 그에게 낙제 점수를 주어 유급(留級)을 시킨 것이었다.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낙제당할 만큼 실력이 뒤지는 편은 아니었다. 순전히 무라야마와 싸웠다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배짱 하나 때문에 억울하게 낙제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최종건은 그것보다 몇 배나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그는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무라야마와 싸워서 이겼고, 그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의를 얻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친구들은 발벗고 나서서 그를 도와 주었다.

❖ 담연의 성공철학

- 떳떳한 일이라면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도와 주어라!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 진정한 승리는 힘이 아니라 명분으로 이기는 것이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 가정교사도 포기한 학생

○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이 많고도 많다. 그러나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많은 일을 놔두고 억지로 남이 시키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행동일지도 모른다.

최종건은 타고난 기질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누가 뭐래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사업가로서 최종건은 정말 바쁘게 살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데 도 시간에 쫓기는 판인데, 하기 싫은 일까지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뜻하지 않은 일로 낙제를 당한 최종건은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공부보다 놀기를 좋아하였는데, 자신을 낙제시킨 일본인 선생이 미워지자 학교 생활까지 싫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최종건은 아침에 학교에 간다고 집에서 나오긴 했으나 중간에 책보를 풀더미 속에 숨겨 두고 다리 밑에 가서 하루 종일 놀았다. 벌말에서 수원역 쪽으로 가다 보면 경부선 철도 굴다리가 나오는데, 그 밑으로 맑은 시냇물이 흘러내렸다.

최종건은 오전 내내 굴다리 밑에서 잠을 자다가 오후가 되어 학교 공부를 끝내고 돌아오는 벌말 아이들을 불러 시냇물에서 미역을 감거나 물고기를 잡으며 놀았다. 그리고 늦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숨겨 두었던 책보를 찾아 어깨에 들러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었다. 최종건이 학교에 가지 않고 중간에 놀다 온다는 이야기가 그의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내 이 녀석을 그냥…!”

최학배 공은 작대기를 숨겨 두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저녁 때가 되어 최종건이 책보를 둘러메고 집으로 들어섰다. 문간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본 그는 기운차게 소리쳤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 학교 다녀왔냐? 학교는 무슨 일어죽을 학교냐, 이 놈아!”

최학배 공은 숨겨 두었던 작대기를 집어들어 아들의 등짝을 때렸다. 마침 등허리에 책보를 메고 있어서 ‘딱!’ 소리가 크게 났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다시 최학배 공이 작대기를 들어올렸을 때는 이미 최종건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가고 난 다음이었다.

최종건은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며 도망가다가 더 이상 아버지가 쫓아오는 기미가 없자, 불쑥 친척인 최동균네 집으로 들어갔다. 같은 또래인 최동균과는 9촌 간이었다. 다만 최동균이 한 항렬 위여서 아저씨뻘이었다.

“하, 할머니! 나 밥 좀 줘!”

최종건은 마당으로 들어서며 최동균의 어머니를 불렀다.

“아이쿠! 이 녀석아, 숨 넘어가겠다.”

최동균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면, 최종건은 금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 때 부엌 쪽에서 뚝딱 소리가 나오고 시끄러웠다. 최동균의 어머니가 부엌으로 갔을 때는 이미 최종건이 밥과 반찬을 뒤져서 부뚜막에 꺼내놓고 막 수저를 입으로 가져가는 참이었다.

“왜 서서 먹니? 내가 상을 차려줄 테니 기다려라.”

최동균의 어머니가 상을 꺼내려고 하자, 최종건은 밥이 가득한 입으로 말했다.

“그, 그럴 시간 없어요. 저 바빠요.”

최종건은 밥을 먹는 데 5분도 안 걸렸다. 그렇게 대충 저녁을 때우고는 밤

이 깊을 때까지 아이들과 밖에서 놀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잠자리에 들었다고 생각될 즈음에서야 살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었다.

최학배 공도 하룻밤 자고 나면 지난 일은 깨끗이 잊어버렸다. 아들이 학교에 안 간다고 작대기를 들고 그렇게 호통을 쳤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마음이 누그러졌다.

아침에 최종건이 세수를 하기 위해 우물가로 나오자, 최학배 공은 조용한 말로 이렇게 타일렀다.

“종건아! 오늘은 다리 밑에서 놀지 말고 꼭 학교 가거라, 알았지?”

최학배 공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 다음에는 쓰다달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최학배 공은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이미 그 무렵 그는 최종건 밑으로 많은 자식을 두고 있었다. 둘째아들 최종현(崔鍾賢), 셋째딸 최종분(崔鍾分), 셋째아들 최종관(崔鍾寬), 넷째딸 최종순(崔鍾順), 넷째아들 최종옥(崔鍾旭) 등 4남4녀의 8남매를 두었던 것이다.

당시 둘째아들 최종현은 세류소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최종건과는 네 살 차이였는데, 그는 제 나이에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형하고는 학년으로 2년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최종건이 5학년, 최종현이 3학년으로 올라갔을 때였다. 남달리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최학배 공은 두 아들을 위하여 가정교사를 두기로 하였다. 당시 벌말에서 10리 가량 떨어진 곳에 수원고등농림학교(水原高等農林學校; 지금의 서울농대 전신)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표현구(表鉉九)라는 학생을 가정교사로 맞이하게 되었다.

최학배 공은 가정교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였다.

“자네에게 두 아이의 공부를 맡길 테니 잘 좀 지도해 주게나. 큰아이가 좀

개구쟁이인데 자네가 휘어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최종건은 “선생님, 선생님!”하면서 가정교사의 말을 잘 따랐다. 그러나 그는 공부에 별 취미를 붙이지 못하였다. 그저 학교에 갔다 오면 밖에 나가 아이들과 병정놀이를 즐길 뿐이었다.

“형! 공부할 시간이야.”

최종현이 팔소매를 붙잡으면 최종건은 헉 뿌리치며 말했다.

“너나 들어가서 해라.”

가정교사인 표현구도 불들어 보려고 했지만, 이미 최종건은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고 없었다.

결국 표현구는 최종건의 공부 지도를 포기한 채, 최종현만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남게 되었다.

최종건이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한 것은 일본 경부의 아들 무라야마와 싸우고 난 뒤 억울하게 낙제를 당하면서부터였지만, 사실 그는 공부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즐거웠다. 방안에 틀어박혀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는 것은 그의 체질에 맞지 않았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최종건의 행동 철학이 되었다. 하지 않으면 그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오래도록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일단 결정한 일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으며, 그것이 나중에 과오로 남는다 해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었다.

❖ 담연의 성공철학

- 판단은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행동은 그 판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결정하고 나면 결코 망설이지 않는다

– 찢어버린 성적증명서

최 종건의 행동 철학은 결단과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일단 자신이 결단을 내린 일이면,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곧바로 행동에 옮기고 나야 직성이 풀린다. 결단을 하고 나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사업가에게 있어서 ‘시간’은 ‘돈’으로 직결된다.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다.

장마철에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박힌 돌도 뜨게 만든다. 최종건의 행동은 마치 장마철 계곡의 물살과도 같다. 그 물살에는 강한 힘과 스피드가 실려 있다.

최종건이 신풍소학교를 졸업할 때였다. 최학배 공은 큰아들을 서울에 있는 갑종(甲種) 학교인 보성고보(普成高普)에 보내고 싶었다. 당시 그 학교에 입학하려면 소학교 성적증명서와 학교장 이름의 소견서(所見書)를 제출해야만 했다.

“얘야! 너 학교에 가서 종건이 성적증명서 좀 떼어오너라.”

최학배 공은 최종건을 믿을 수가 없어 최양분에게 심부름을 보냈다.

그런데 눈치를 챈 최종건이 신풍소학교로 가는 누이 최양분의 뒤를 슬금슬금 따라왔다.

“넌 집에 가 있어!”

최양분이 동생을 떠밀었다.

“심심한데 같이 가자구.”

최종건은 누이의 말을 듣지 않았다. 동생의 고집이 어지간하다는 걸 알고 있는 최양분은 따라오건 말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로 향했다.

최양분이 신풍소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에게 부탁해 최종건의 성적증명서를 떼었을 때였다. 막 교문을 나서는데 누군가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들었다.

“그것 좀 줘 봐!”

최종건이 불쑥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안 돼! 아버지께 가지고 가야 한단 말야.”

“글쎄 이리 줘 보라니까.”

최종건은 최양분에게서 독수리처럼 성적표를 채갔다.

봉인된 성적증명서를 뜯어본 최종건은 인상을 한번 찌푸리더니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북북 찢어버렸다.

“애, 그걸 찢어버리면 어떡해?”

최양분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성고보 안 가면 될 거 아냐!”

최종건은 찢어진 성적증명서를 길거리에 희 뿐인 채 먼저 가 버렸다. 할 수 없이 최양분은 담임 선생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다시 성적증명서를 떼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최종건은 이미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 놓고 있었다. 그는 어떤 결단을 내릴 때 결코 망설이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결단이 서면 곧바로 행동에 옮겨야 직성이 풀렸다. 성적이 안 되는데 굳이 보성고보를 고집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직업학교에 들어가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하였다.

그날 밤 최학배 공은 사랑방으로 최종건을 불러들였다. 이미 최양분이 학교에서 떼어온 성적증명서를 보고 큰아들의 실력을 다 알고 난 뒤였기 때문에, 더 이상 보성고보에 보내겠다는 욕심을 낼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더구나 그 성적으로는 학교장이 소견서도 써 주지 않을 것이 뻔했다. 그래서 수심이 기득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 앞으로 어찌할 셈이냐?”

최종건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버지! 직업학교에 들어가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직업학교라면 대체 어느 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우선 서울 외삼촌댁에 가서 마땅한 직업학교를 찾아보겠습니다.”

최학배 공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네 외삼촌과 상의해서 결정하거라.”

최학배 공도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다고 생각했다. 큰아들이라 좋은 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키고 싶었지만, 성적이 따라주지 않으니 별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둘째아들 최종현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로 하였다.

만약 이때 최종건이 직업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최학배 공은 장남인 그에게 계속 공부를 시키려고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어쩌면 사업가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 담연의 성공철학

- 결단은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라.

달리는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는다

- 경성직업학교 시절

인

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군웅할거 시대에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인생 철학이다. 인생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다. 멈춘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되 잠시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 도쿠가와식 인생이라면, 최종건은 쓰러지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최종건처럼 쉬지 않고 앞으로 달리기만 한 사업가가 또 있을까. 그는 쉬지 않고 달렸고, 달리면서 생각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마라톤 선수들의 인생은 42.195km를 달리는 과정 속에 있다. 그들은 달리면서 생각한다. 잠시도 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달리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건은 사업을 하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렸다. 그는 강건한 두 다리로 힘을 주며 '인생' 이란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달리다 멈추면 쓰러진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최종건은 직업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서울에 사는 외삼촌댁으로 갔다. 사정을 다 듣고 난 외삼촌은 그에게 경성직업학교(京城職業學校) 기계과를 추천하였다.

당시 경성직업학교는 병종(丙種) 학교에 속했기 때문에 성적증명서나 학교장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다. 따라서 최종건도 학교에 입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경성직업학교는 서울 마포 초입인 아현동에 있었다. 최종건은 수원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통학했다. 수원역에서 아침 6시 정각에 출발하는 열차를 타야 만 학교 등교시간을 맞출 수가 있었다. 그러자면 새벽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서

▼ 경성직업학교의 실습시간. 최종건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보다는 기계를 뜯고 조립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런 최종건에게 직업학교 입학은 기업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둘러야 하는데, 늦게 일어나 아침 밥을 먹다보면 매일 뛰다시피 해야 열차 시간 안에 수원역에 당도할 수 있었다. 열차로 서울역까지 가서는 다시 학교가 있는 아현동까지 5리 길을 걸어야 하는 고달픈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런데도 최종건은 열심히 학교를 다녔다. 소학교 다닐 때처럼 피도 부리지 않았으며, 학교에 지각을 하거나 결석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그는 학교 생활에 재미를 붙였다. 소학교에 다닐 때처럼 눈에 거슬리는 일본인 학생들도 없었고, 학교의 교과과정도 그의 적성에 맞았다.

당시 경성직업학교는 2년제 단기 실업학교였기 때문에 제반 교과과정이 실습 위주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따분한 이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실습으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최학배 공은 최종건에게 자전거를 한 대 사주었다. 매일 새벽 집에

서 수원역까지 뛰어가다시피 하는 큰아들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최종건은 자전거를 타고 새벽길을 달렸다. 아침 햇살이 비쳐 바퀴가 번쩍 번쩍 빛나는 새 자전거를 타는 기분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기분이 좋아 휘파람까지 휘휘 불어대며 힘차게 자전거 폐달을 밟았다.

자전거는 두 개의 바퀴로 달려도 쓰러지지 않았다. 가만히 있을 때는 쓰러지지만 달리고 있을 때는 결코 쓰러지는 법이 없었다. 최종건은 문득 아버지 최학배 공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인생은 달리는 것이다. 달리지 않으면 쓰러진다. 그러므로 열심히 달리는 자만이 인생의 열매를 얻는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최종건은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비 온 뒤 들판 저 끝에 반원을 그리며 펼쳐지는 무지개처럼, 그는 꿈과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자전거 타기에 다름이 아니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은 확실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었고, 쉬지 않고 열심히 폐달을 밟아야만 일정한 시간 안에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끊임없이 자전거 폐달을 밟는 것과 같았다.

“그래, 열심히 달리는 거야. 다른 방법은 없어.”

최종건은 더욱 다리에 힘을 주어 자전거 폐달을 밟았다.

그렇게 최종건은 1년 동안 자전거와 열차를 타고 통학했다. 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는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였다. 두 개의 기차 레일이야말로 ‘꿈’과 ‘희망’이고, 그 위를 달리는 열차는 바로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열차의 기관사가 되어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 이 즐거웠다.

경성직업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밤늦게까지 실습을 하게 되자, 최종건은

▼ 경성직업학교 재학 시절 남대문 앞에서 학우들과 함께. 서울은 최종건에게 더 넓은 세상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준 희망의 본거지였다.

아예 서울에 사는 외삼촌댁에서 통학하였던 당시 외삼촌댁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경성직업학교는 취업을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2학년 2학기가 되면서부터 현장으로 실습교육을 나갔다. 최종건은 학교에서 주선해 주는 대로 부평에 있는 육군 조병창(造兵廠)에 가서 실습을 받았다. 조병창은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당시는 태평양전쟁이 한창일 때여서, 사실상 실습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전시동원계획에 의한 강제노역에 가까웠다.

그러나 최종건은 육군 조병창에서 열심히 기술을 익혔다. 그는 어떤 기술이든 배워 놓기만 하면 나중에 쓸 곳은 많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기름때를 묻혀가며 하루 종일 기계 밑에 들어가 일을 해야만 하는, 이러한 고된 현장 실습은 경성직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처럼 최종건이 열심히 기술을 익힌 것은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는 페달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페달을 밟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라톤 선수가 자기 발끝만 바라보며 달리다 보니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달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승점이 나타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달리는 선수는 곧 지쳐버



린다. 그러나 자기 발끝만 바라보고 달리는 선수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달리기 때문에 결승점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가 있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업가는 결코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성공으로 이르는 길 위에 그는 서 있다. 그는 오직 그 ‘현재’에 충실할 뿐이다. 그 길을 열심히 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의 결승선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

* 담연의 성공철학

-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미래의 희망을 잡는다.
- 일 자체의 과정을 즐겨라. 직장을 ‘재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

진정한 리더십은 정의(正義)에서 나온다

- 선경직물 입사

사업가는 리더십이 강해야 한다. 진정한 리더십은 정의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업가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 속에서 쏙힌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정의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발현되는 것일까. 정의로운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의 말 한 마디에 순종한다. 그를 믿기 때문이다.

최종건은 경성직업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현장 실습을 하던 육군 조병창에 취직이 되었다. 첫 월급을 탔을 때 그는 신사복을 한 벌 맞춰 입고 수원 집으로 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내려왔다.

“아버지, 저 취직했습니다.”

최종건은 아버지 앞에 불쑥 월급 봉투를 내밀었다.

“취직? 대체 어디에 취직을 했단 말이냐?”

“부평에 있는 육군 조병창입니다.”

최종건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군수품 만드는 공장 말이냐? 거긴 안 돼! 부평이면 집에서 너무 멀다.”

최학배 공은 큰아들을 곁에 두고 싶었다.

“육군 조병창에서 5년만 근무하면 1급 기사증을 딸 수 있습니다.”

최종건의 말에 최학배 공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주선할 터이니 선경직물에 들어가거라.”

마침 벌말에는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선경직물(鮮京織物) 공장이 들어서 있었다.

▼ 경성직업학교 졸업 후, 최종건은 아버지의 권유로 선경직물에 입사하였다. 당시 수원에서 유일한 대규모 공장이었던 선경직물에서 그는 뛰어난 기술과 리더십으로 곧 조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맨 뒷줄 왼쪽 세 번째가 최종건)

최학배 공은 큰아들을 선경직물에 취직시킬 자신이 있었다. 그는 선경직물이 들어설 당시 공장부지를 구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장본인이었다.

1941년 9월 어느 날, 별말에서 과수원을 하는 일본인 데쿠치(出口)가 대성상회로 최학배 공을 찾아왔다. 당시 데쿠치는 별말 구장(현재 이장 정도의 직위)을 맡고 있었다.

데쿠치는 신작로 건너편의 서호천 쪽으로 붙은 땅을 사고 싶어서 최학배 공에게 흥정을 부탁하러 온 것이었다. 명색이 구장이지만, 그것은 조선총독부 행정 당국에서 일본인을 내세우기 위해 시킨 일이었다. 그래서 구장이라 하더라도 별말 사람들은 데쿠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편이었다.

“데쿠치상이 그 땅을 산단 말입니까? 대체 얼마나 살 예정입니까?”

최학배 공은 이미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데쿠치에게 그렇게 넓은 땅은 필요가 없을 거라고 짐작하고 물었다.



“내가 사려는 것이 아니고, 내 친구가 그곳에 공장을 짓겠습니다. 한 8천 평 정도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땅은 읍내 사는 차영감네 밭인데, 1만 2,000평이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배 공은 그 땅에 공장을 짓는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대대로 농사만 지어온 마을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서서히 서호천에도 개혁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이었다. 서호천은 벌말 평야지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해마다 풍년이 들게 해주었다. 그런데 그곳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그 물을 공업용수로 이용하겠다는 계산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면 서호천은 공장이 들어서기에 안성맞춤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애초에 땅을 사겠다는 일본인은 공장부지 8,000평이 필요하고, 지주인 차철순은 한 필지인 1만 2,000평을 떼어서 팔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홍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학배 공은 어떻게 해서든 벌말에 공장을 유치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묘안을 제시하였다.

‘살 사람은 지주에게 1차로 8,000평에 대한 토지대금 2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잔여분 4,000평은 2차로 5년 이내에 시가에 따라 매수키로 한다. 다만 그때까지 동일 번지의 1만 2,000평은 분할하지 않고 쌍방이 공동명의로 등기 한다.’

이 제안은 쌍방에게 흔쾌히 받아들여졌다.

결국 최학배 공은 끈질긴 홍정 끝에 차철순으로 하여금 서호천 인근의 땅을 공장부지로 내놓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가 이처럼 그 땅을 홍정하는 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이제 벌말도 농사만 가지고는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벌말 바로 뒤의 서호천 인근에 직물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공장을 건설할 때 최학배 공은 골재와 목재를 납품하여 짭짤한 재미를 보기 도 하였다.

최학배 공은 큰아들을 집안에 붙들어 앉히기 위하여 이 선경직물에 취직을 시키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공장장을 찾아가 부탁을 해서 최종건을 선경직물에 입사시켰다.

원래 선경직물주식회사는 1930년대에 일본인이 조선에서 만주 일대를 대상으로 직물을 수출하던 선만주단(鮮満綱段)과 일본의 교토직물(京都織物)이 합작해서 설립한 회사였다. 교토직물은 직기를 현물출자(現物出資)하고, 선만주단은 공장부지를 비롯한 건물 공사비와 기타 비용을 투자했다. 그래서 상호도 선만주단의 ‘선(鮮)’ 자와 교토직물의 ‘경(京)’ 자를 따서 ‘선경(鮮京)’이라고 지은 것이다.

최종건이 선경직물에 입사한 것은 1944년 4월이다. 한 달 전에 경성직업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그는 3급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지만, 입사 당시에는 견습기사에 불과했다. 그래서 같은 3급 기사인 일본인 시라가와(白川) 밑에서 일해야 했다.

선경직물에 입사한 지 3일째 되는 날, 공무계 시라가와 기사가 최종건을 불렀다.

“너 공구창고 좀 정리해라!”

최종건은 시라가와가 시키는 대로 공구를 정리하기 위해 창고로 갔다. 창고 안의 공구는 비교적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런데 몇 개의 소형 공구가 장부에 적힌 숫자보다 한두 개씩 부족했다. 값으로 따져도 대단한 것은 아

▼ 일제 시대 때 선경직물은 처음
본사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청
진동에 두었다(일제 당시 2층
에 선경직물이 있었던 건물의
1980년대 모습).



니어서 그는 가벼운 마음으
로 사무실로 돌아갔다.

“작은 공구 몇 개가 장
부와 맞질 않습니다.”

최종건이 시라가와에게
보고했다.

“또 조선인 견습공 놈들
이 훔쳐갔군!”

시라가와가 말했다.

“어떻게 조선인이라고 단정합니까?”

최종건은 치밀어오르는 분한 마음을 꾹꾹 눌러 참으며 조용히 따졌다.

“만약 네가 도둑놈을 색출해 내지 않으면 너도 앞으로 같은 도둑놈으로
취급하겠다.”

“그 공구들은 내가 오기 전에 없어진 겁니다.”

최종건은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책임소재를 따지자는 게 아니야. 조선인들은 골치가 아파! 모두 도둑놈들
이란 말이야!”

시라가와는 최종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그 순간 최종건은 선경직물에 입사한 첫날 조선인 견습공들이 그에게 들려
준 말을 떠올렸다. 시라가와가 조선인 견습공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구리
스가 묻어 있는 공구를 혀로 핥으라고 하질 않나, 공연히 도둑 누명을 뒤집어
씌워 갖은 욕지거리를 퍼붓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자식! 너는 조선인을 얕잡아보는 벼룩이 있지?”

최종건은 시라가와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당시 만으로 18세였던 최종건은 키가 크고 눈이 부리부리한 인상이었다. 그에게 멱살을 잡힌 시라가와는 두 발이 땅에서 끌어 올려져 바둥바둥 매달리는 꼴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었다. 최종건이 손을 훡 뿌리치자 시라가와는 소리 한 번 질러보지 못하고 콘크리트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소문은 삽시간에 공장 내로 퍼져 나갔다. 당시 선경직물에는 별말 출신의 견습공들도 상당수 있었고, 여공들도 대부분 인근 마을의 나이 어린 조선인들이었다. 시라가와에게 시달림을 받아 온 그들은 깨소금 맛이라며 속으로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선경직물에서 근무하던 20여 명 내외의 일본인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병역이 면제된 나이 많은 간부급이었다. 시라가와의 증언을 듣고 일본인 간부들은 일제히 홍분했다.

“공장장! 이는 우리 일본인에 대한 조선인의 중대한 도전입니다. 당장에 엄중한 조처를 내려야 합니다.”

일본인 간부들은 최종건을 곧바로 형사 입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 진정들 하게!”

사건의 진위를 파악한 기시아키라(岸晃) 공장장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최학배 공의 부탁으로 최종건을 취직시켜준 장본인이기도 했다. 평소 시라가와가 조선인 견습공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초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도 다 간파하고 있었다.

“그 조선인 견습기사는 이 지방 유지인 최학배 씨의 자제다. 최학배 씨는 우리 공장을 지을 때 공로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이 일본인과 조

선인 사이에 벌어진 충돌이긴 하지만, 우리 공장과 이 지역 주민 간의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원만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간 이후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도록!”

기시아키라 공장장의 이 같은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 간부들도 사건을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최종건은 선경직물에 근무하는 조선인 종업원들의 중심 인물로 부각되었다. 특히 벌말 출신인 박윤환(朴允煥), 이강석(李康錫), 최석종(崔石鍾), 최한종(崔漢鍾) 등의 견습공이 그를 잘 따랐다. 그들은 어린 시절 그를 ‘골목대장’으로 생각하며 어울려 다니던 동료들이기도 하였다.

이미 최종건은 이때부터 사업가다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매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는 데 있다. 그 믿음은 ‘정의’에서 비롯되고, 그것은 곧 리더십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 담연의 성공철학

- 유능한 리더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따라오게끔 만든다.
- 높다고 믿는 신념대로 행동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강한 힘이 나온다

- 생산부 제2조장으로 발탁

○ 세상 모든 일은 혼자서 이루기 힘들다.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서 하나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사업은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이 이루어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음악으로 치면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이다.

최종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업가였다. 그는 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다정다감함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그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사람을 다루고 이끄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최종건이 입사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1944년 초여름 어느 날이었다. 일본인 직포주임이 그를 불렀다. 키가 작고 앗되어 보이는 소년이 직포주임 곁에 서 있었다.

“오늘부터 이 아이를 곁에 두고 일을 가르치게!”

최종건에게도 조수가 생긴 것이었다. 비록 3급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견습기사에 불과하였지만, 일본인 간부들도 그의 실력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최종건이 물었다.

“너 이름이 뭐니?”

“이용진인데요?”

이용진은 당시 소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소년이었다.

“따라와!”

최종건은 직포주임의 방에서 이용진을 데리고 나왔다.

이용진은 처음부터 얼이 빠졌다. 최종건의 우람한 체격과 부리부리한 눈에 기가 꽉 죽었던 것이다.

“너 어디서 왔니?”

“용인이고.”

최종건의 물음에 이용진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춘놈이구나!”

최종건은 이용진에게 기계에 기름 넣는 요령부터 가르쳐 주었다.

그 날 이후부터 이용진은 최종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일을 성심성의껏 하였다.

“짜아식! 맘에 드는데?”

최종건은 넓적한 손바닥으로 이용진의 등을 두드려주며 간단한 고장이 생긴 기계를 수리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하루 종일 최종건은 조수와 함께 기계를 만지다가 저녁 때 퇴근 무렵이 되면 기름묻은 손을 씻었다.

이용진은 얼른 물과 비누와 수세미를 최종건 앞에 대령했다. 그리고 자신도 손을 씻기 시작하였다.

손을 다 씻고 나서 이용진이 쳐다보면, 최종건은 그때까지도 손톱에 낀 기름이나 때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꼼꼼하게 씻고 있었다.

“그만 씻어요.”

성질 급한 이용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아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트지 않는단다. 이리 와, 너도 더 씻어라. 이 손톱의 때 좀 봐라. 이게 다 씻은 거니?”

최종건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난 후 이용진은 그가 보기보다 깔끔하고 온정이 있는 사람이란 걸 느낄 수 있었다.

1944년 8월, 선경직물은 조선총독부의 기업정비령(企業整備令)에 의하여 조선직물주식회사(朝鮮織物株式會社)에 통합되었다. 조선직물은 1920년대에 일본인이 설립한 조선 굴지의 직물회사였다. 당시 안양에 조선직물 공장이 있

었는데, 조선총독부는 당시 화신백화점 사장이었던 박홍식에게 이 공장 부지를 항공기 제조창으로 내주었다. 그 대신에 수원 인근에 있는 크고 작은 직물 공장을 조선직물에 넘겨 통합회사로 만든 것이었다. 선경직물을 비롯한 선 일직물(鮮日織物), 동홍직물(同興織物) 등이 이때 조선직물로 흡수되었다.

통합회사로 변신한 조선직물은 자회사였던 동홍직물을 본사로, 선일직물을 제1공장으로, 선경직물을 제2공장으로 각각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공장 간 부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가 단행되었는데, 제2공장인 선경직물에는 종전 기시아키라 공장장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되자 그 후임으로 스스키사브로(鈴木三郎)가 부임하였다.

새로 온 스스키사브로 공장장은 한 달 동안 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종업원들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리고 나서 곧 인사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이 때 공무계 견습기사였던 최종건을 생산부 제2조장으로 발탁하였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는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남달리 체구가 우람했고 이미 조선인 종업원들 사이에서 포용력과 통솔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것을 공장장은 눈여겨 보고 있다가 전격적으로 그에게 중요 직책을 맡긴 것이었다.

당시 생산부 제2조장은 제직(製織) 담당으로 대부분이 여공들인 1백여 명의 제직조 종업원을 통솔하는 직책이었다. 즉 교대 작업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생산계획을 수립하며,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였다.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최종건에게, 더구나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에게 그런 직책이 주어진 것은 직물공장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물론 조장을 맡길 만한 일본인들은 모두 태평양 전쟁으로 인하여 군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 직책이 조선인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입사한 지 채 1년도 안 되는 최종건에게 생산부 제2조장을 맡긴 것은 신임 스스키사브

몰매 맞은 기다무라 공무주임

조 선총독부의 기업정비령에 의하여 선경직물이 조선직물의 제2공장으로 편입되면서 안양 본사에 근무하던 간부사원들이 파견을 나왔다. 그들은 선경직물로 파견되면서 공장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조선직물 안양공장에 근무하던 자신들 수하의 종업원들까지 데려왔다. 이렇게 되자 안양공장 출신과 기존 선경직물 출신 종업원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심했다.

본사에서 파견된 간부들은 자신들이 데리고 온 안양공장 출신 종업원들을 우대해주는 반면 선경직물 종업원들에게는 냉대가 심하였다. 당연히 선경직물 종업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특히 본사에서 파견된 간부들 중 가장 악랄했던 사람은 기다무라(北村) 공무주임이었다. 선경직물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최종건에게도 그의 편파적인 행위가 눈엣가시처럼 느껴진 것이 사실이었다.

기시아키라 공장장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 송별회를 열 때였다. 술이 거나해진 선경직물 종업원, 특히 최종건을 비롯한 벌말 출신 사람들은 한꺼번에 분노가 폭발하였다. 송별회장에서까지 기다무라 공무주임이 안양공장 출신인 수위장을 감싸고 돌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 주먹세례를 퍼부었던 것이다.

송별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기다무라와 수위장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이 사건은 곧 본사에 보고되었고, 즉시 문체 인사가 뒤따라 몇몇 기관장급 중견 사원이 좌천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위장 부인이 자기 남편을 말리는 과정에서 임신 중인 배를 누구에겐가 걸어차여 낙태가 되었다고 경찰서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되자 연일 수원경찰서 순사들이 선경직물 공장을 들락거리며 사건을 취조했다. 사건 당일 송별회 자리에 있던 벌말 출신 종업원들이 차례로 불려나가 조사를 받는 등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다가 때마침 해방이 되어 수위장 부인의 고발 사건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도움말 | 이용진〉

▼ 경기도 수원시 평동 7번지에
소재한 최종건 회장의 생가.

09

로 공장장의 사람 보는 눈이 그만큼 정확했기 때문이었다.

경성직업학교에서 3급 기사 격증을 딴 최종건에게는 천재일우(天載一遇)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생산부 제2조장을 맡으면서 우선 종업원들을 통솔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작 기술을 체득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리더십과 기술력은 기본에 속하는 문제였다. 건축도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 기본에 충실하면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그는 현장체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었다.

제직조의 여공들은 간혹 최종건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많았다. 그의 누이인 최양분이나 최양순의 친구들도 여럿 있었다. 그렇게 나이 많은 여공들도 그의 말에 잘 따라주었다.

“조장님! 오늘은 볶은 콩 안 줘요?”

휴식시간이 되면 여공들이 최종건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시 최종건은 집에서 콩을 한 말씩 볶아 가지고 나와 여공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곤 했다. 그가 실천한 리더십의 기본은 먼저 베푸는 것이었다. 비록 값으로 치면 별 것 아니지만,

그는 거기에는 자신의 정성과 마음을 듬뿍 담아 감동을 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여공들 사이에 인기가 아주 좋았다.

한편 최종건은 남



자 종업원들에게도 남다른 정성을 기울였다. 그는 공장이 쉬는 일요일 같은 때는 남자 종업원들을 이끌고 서호천으로 나갔다. 서호천에는 잉어, 메기, 쏘가리, 피라미 등 물고기가 많았다. 그는 집에서 그물을 가지고 나와 남자 종업원들과 함께 어울려 물고기를 잡았다.

“야, 용진아! 너 우리 집에 가서 쌀 좀 한 자루 가져오거라.”

최종건은 조수를 불러 쌀과 매운탕 끓일 국거리를 장만하게 했다. 집이 서호천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한달음에 다녀올 수 있었다.

서호천 뚝방에서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 먹으면 그 맛이 아주 좋았다. 거기에 막걸리를 받아다 술판을 벌이면 남자 종업원들은 신바람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곤 하였다. 당시만 해도 제삿날이나 돼야 쌀밥을 구경하던 종업원들은 오랜만에 포식을 할 수 있었다.

* 담연의 성공철학

- 동료와 부하직원을 진심으로 대하라. 진심은 백 마디의 말과 규칙보다 더 강하게 사람을 움직인다.
- 애정과 신뢰를 자주 보여주는 리더가 돼라.

뼈를 깎는 고통이야말로 성장의 밑거름이다

- 두 번의 감원 바람 -

나 무는 거름을 주어야 잘 자란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은 고통이다. 뼈를 깎는 고통 없이는 어떠한 성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성취의 기쁨도 배가된다.

사업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다. 물론 돈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크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감원을 해야 할 때 사업가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최종건은 자신의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고통을 충분히 경험했다. 그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공부가 아닐 수 없다.

1945년 초부터 시국이 날로 뒤숭숭해지더니, 선경직물에도 감원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점점 치열해지는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일본은 물자 부족을 겪게 되었고, 직물을 짜는 원료인 인견사(人絹絲)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쉬는 기계가 많이 들어났다. 기계가 놀면 손을 놓고 있는 종업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감원 이외의 다른 방안이 없었다.

드디어 스스키사부로 공장장으로부터 생산부 제2조에도 20명을 감원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직접 누구를 지목하여 회사를 그만두도록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조장이 할 일이었다. 최종건은 입사 이후 가장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종업원들의 밥줄을 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최종건은 며칠 간 고심을 거듭했다. 생산부 제2조 100여 명 중 20명을 골라내야 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각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그만두게 한다는 것은 그 가족까지 밥줄을 끊어 놓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사정이 그러하니 누구도 자청해서 그만두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최종건은 고심 끝에 입사 기간이 짧은, 즉 경험이 미숙한 종업원 순으

▼ 선경직물 조장 시절의 최종건
(왼쪽 첫 번째 의자에 앉은 이
가 최종건).

로 그만두게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눈물을 머금고 내린 단안이었다. 어차피 그만두게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이익을 내자면 우선 경험이 풍부한 능력 있는 종업원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소수정예(小數精銳)로 위기를 탈출해 보자는 궁여지책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입사 기간이 짧은 순서대로 20명을 감원하다 보니, 그 대상자 중에 별말 사람들이 13명이나 되었다. 더구나 최종건 자신이 입사를 주선한 사람도 그 중에 5명이나 있었다. 당연히 감원 대상이 된 별말 사람들의 불평이 뒤따랐다. 하지만 일단 결정한 기준을 변복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최종건은 직접 술을 사고 밥을 사면서 감원 대상이 된 종업원들을 설득시켰다. 다음에 회사 사정이 좋아져 새로 종업원을 뽑게 되면 가장 먼저 감원된



사람들부터 불러들이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이전 경력까지 인정해서 월급을 책정해 주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종업원을 감원하면서 최종건은 많은 것을 배웠다. 우선 기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 즉 기업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며, 사람은 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 같은 사람과 기업의 함수관계 야말로 풀기 어려운 수학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학은 공식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지만, 기업은 해결책을 알고 있어도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난해한 문제라는 데 그 어려움이 있었다. 기업가야말로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기업과 사람 사이의 함수관계를 잘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즉 위기 대처 능력이야말로 기업가의 자질임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위기는 언제 어느 때 닥쳐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기업가는 위기의 순간에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것을 뚫고 나갈 방법론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감원으로 인한 회사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러나 1945년 초여름이 되면서 또 한 차례 감원 바람이 불어왔다. 일본 영토까지 전쟁에 휩싸이면서 일본에서 들어오던 인견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간혹 조업을 단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공장의 모든 기계를 세워두는 적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감원 명령이 떨어졌으니 조장인 최종건으로서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다시 입사 기간이 짧은 순위로 감원했다. 그 방법 이외의 다른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제2차 감원 대상자를 결정한 날 저녁 최종건은 친구 유만성과 함께 술집으로 향했다. 며칠 전까지 회사를 살려보자고 열심히 일해 오던 종업원들을 헤고

하고 나서 술로 아픈 가슴을 달래려는 것이었다. 몇 차례 술잔이 오가고 나자 취기가 돌았다. 아무리 취해도 직성이 풀리지 않자, 그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마침 순찰을 돌던 일본 현병 두 명이 최종건의 노래 소리를 듣고 술집으로 들어왔다.

“이 비상시국에 고성방가라니, 너희들 정신이 있는 녀석들이야? 조센징 주제에 말야.”

일본 현병 하나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최종건은 일본 현병의 입에서 ‘조센징’이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갑자기 울컥하는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그러나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참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 날 밤 최종건과 유만성은 고성방가를 했다는 이유로 일본 현병대에 끌려가 호되게 매를 맞았다. 다음 날 아침에 풀려난 두 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분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

며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를 갈던 최종건은 마침내 같이 일본 현병대에 끌려가 매를 맞은 유만성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 이대로 있다가는 속병이 나서 죽을 것만 같다. 술에 취해 노래 한 곡조 짧은 것이 무슨 죄냐? 내가 오늘 밤 복수를 하고 말겠다.”

“대체 무슨 수로 복수를 해?”

유만성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잔소리 말고 나만 따라와!”

최종건은 유만성을 끌고 서호천 다리 근처로 갔다. 바로 그 곳은 일본 현병이 순찰을 도는 길목이었다. 칠흑 같이 깁깝한 그믐밤에 두 사람은 길가에 엎드려 순찰을 도는 일본 현병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후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순찰 현병은 두 사람이 한 조였다.

“온다. 내가 덩치 큰 녀석을 맡을 테니까, 만성이 너는 작은 녀석을 맡아!”

최종건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진짜 저들이 우리를 때린 그 녀석들 맞아?”

유만성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틀림없어! 내가 미리 오늘 밤 순찰을 도는 녀석들이 누구인지 조사를 해 놨거든.”

최종건은 그러면서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다.

곧 순찰 현병들이 다리 가까이로 왔다. 최종건과 유만성은 각자 맡은 상대를 향하여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일본 현병 두 명은 땅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사정을 두지 않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았다. 그리고는 시체처럼 늘어진 두 명을 끌어다가 다리 밑 넷물로 집어던졌다.

“죽지 않을 만큼 패났으니 이제 가자.”

최종건은 유만성의 손을 잡아끌었다.

“저대로 놔 뒤도 팬찮을까?”

유만성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찬물에 들어갔으니 곧 정신이 들거야.”

최종건과 유만성은 곧 그곳을 떠났다.

다음 날 일본 현병대에서 추적하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다행히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 뒤로 일본 현병들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는데, 그 무렵 최종건에게 군대 영장이 나왔다. 그는 이미 군대에 갈 나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본 군대로 끌려가는 것이 그는 죽기보다 싫었다.

고민 끝에 최종건은 이웃에 사는 친척인 최동균네 집으로 달려갔다. 당시

최동균도 선경직물에서 염색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할머니! 저는 죽어도 일본 군인으로 안 가요. 혹시나 제가 만주로 도망가게 될 경우 인군이 아저씨한테 연락 좀 취해주세요.”

당시 최동균의 형 최인균은 만주에서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최종건은 일본 군대에 끌려가기 전에 만주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해방이 되었다. 일본 군대 입영 날짜가 되기 전에 해방이 되었으니, 최종건으로서는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해가 뜨기 직전의 어둠이 유난히 깊은 것처럼 해방 직전의 상황은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선경직물은 감원 열풍으로 고통을 겪었고, 최종건은 그 연속되는 고통 속에서 인내를 배웠다. 고통은 쓰디쓰고 인내의 시간은 길게 느껴졌지만, 그 아픔과 지루함이 주는 교훈은 달고도 값진 것이었다.

* 담연의 성공철학

- 위기일수록 소(小)를 버리고 대(大)를 선택하는 과감한 결단과 지혜가 필요하다.
- 고통을 상처로 남기는 사람은 패배하지만, 그것을 인내로 극복하며 삶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람은 성공 한다.

궁지에 몰린 적은 공격하지 않는다

- 해방과 선경치안대 조직

「손」 자병법에 ‘적을 포위할 때는 반드시 한쪽을 터놓고, 궁지에 몰린 적은 끝까지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도망갈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을 때 적은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오히려 아군에게 큰 피해가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이다.

강한 적에게는 공격을 가해야 하지만, 약한 적에게는 적당하게 아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지휘관이다. 적을 설득시킬 줄 아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자기 부하를 설득시키는 일쯤은 누워서 떡먹기보다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 은(殷)나라 탕왕(湯王)은 덕의 정치를 베풀어 천하를 얻은 성군이다. 그는 새사냥을 나가서도 사방에 그물을 친 신하들을 꾸짖어 한쪽 면의 그물만 남겨두게 하였다. 그리고는 날아 다니는 새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좌로 가고 싶은 새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싶은 새 우로 가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새만 내 그물로 들어오라.”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제후들은 탕왕의 덕이 금수(禽獸)에게까지 미친다 하여 그 뜻을 높이 사서 모두가 신하되기를 자청하였다. 힘으로 제압하면 변방을 얻고 덕을 행하면 천하를 얻는다는 진리가 입증된 셈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나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면 너도 나도 자진하여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최종건은 힘이 있는 기업가다. 그러나 그는 뚜렷한 명분이 있을 때만 그 힘을 사용한다. 그는 힘보다 덕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가 쫓기는 적에게 아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해방을 맞았을 때의 일이다.

선경직물은 1945년 8월 15일 오전까지 정상 조업을 하였다. 그런데 정오 뉴스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스스키사브로 공장장으로부터 조업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조선인 종업원들 대부분은 전에도 가끔 조업을 중단한 일이 있었으므로, 그것이 일본의 항복 소식 때문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였다.

생산부 제2조장인 최종건도 그때까지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을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아무 이유도 없이 조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일단 종업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자신은 공장에 남아 공장장의 지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공장 분위기는 예전에 조업을 중단하던 때와 사뭇 달랐다. 일본인 간부들이 매우 긴장된 얼굴로 사무실을 부산하게 오갈 뿐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최종건은 공장장을 찾아가 물어보았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스스키사브로 공장장의 표정은 다른 간부들과는 달리 담담하였다. 그가 한숨 끝에 조용히 말했다.

▼ 1945년 8월 15일 해방.
해방 직전 적령으로 일본군대
에 징집당할 위기에 처했던
최종건에게 해방은 반기운 소
식이 아닐 수 없었다.

“왜 아직까지 퇴근을 하지 않았나?”

“공장장님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최종건은 슬쩍 상대의 눈치를 살폈다. 공장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였다.”

“공장장님! 그, 그게 정말입니까?”

최종건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최군은 조선 사람이다. 이제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지시를 듣지 않아도 된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제서야 최종건은 진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좀처럼 그 기쁨이 실감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최종건은 공장으로 나갔다. 아침부터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 수원 역전으로 나가 보았다. 역전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홍분에 들뜬 표정으로 만세를 불렀고, 수원역 국기 게양대에는 일장기 대신 태극기가 펼럭거리고 있었다.



최종건은 그제서야 실로 해방의 기쁨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 휩쓸려 만세를 부르며 매산정 1정목으로 나갔다. 행렬을 따라가다가 그는 군중 가운데서 신풍소학교 동창생인 고종균(高鍾均)과 김승제(金承濟)를 만났다.

저녁 때가 되자 최종건은 그 두 사람과 함께 술집으로 향했다. 당시 고종균은 인천공업학교를 졸업하고 농기구제작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김승제는 수원 금융조합에 근무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술을 마시며 시국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집 밖이 시끄러웠다.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와 보았다. 행길 건너편에서 역전 건달들이 중년 남성을 끌고 나와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그 중년 남성은 다름아닌 수원경찰서 무라야마 경부였다.

최종건은 문득 소학교 시절 벌말 친구들과 함께 무라야마의 아들 다케오를 폐주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일로 해서 결과적으로 낙제를 당하긴 했지만, 막상 피투성이가 되어 몰매를 맞고 있는 무라야마를 보자 동정심이 벌동하였다.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냐?”

최종건이 역전 건달들을 향해 소리쳤다.

“너는 뭐야?”

“송장이 다 된 사람을 그렇게 폐도 되는 거냐? 이제 그만 놔 주는 게 좋겠다.”

최종건은 점잖게 말했다.

“우린 악랄하기로 소문난 일본 경부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체 너는 누구냐?”

이번에는 역전 건달들이 최종건에게 덤비려고 하였다. 이 때 고종균과 김승제가 끼어들며 소리쳤다.

“야, 너희들 ‘황소주먹’ 모르냐?”

당시 최종건은 ‘황소주먹’ 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역전 건달들도 그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슬슬 물러났다.

최종건이 일본인 무라야마 경부를 위기에서 구해 준 것은 단순한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법천지처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만약 일본인이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국가에서 법을 통해 벌을 주어야지 일개 개인의 원한으로 복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 다음 날인 8월 17일 정오에 정부는 치안유지를 위하여 건국치안대(建國治安隊)를 발족한다는 뉴스를 라디오를 통해 내보냈다. 각 도·부·군·읍·면 단위로 자발적인 치안대가 조직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최종건은 전날 거리에서 무라야마 경부가 몰매를 맞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치안공백 상태를 그대로 놔 두었다가는 사회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선경직물을 지키지 않으면 공장이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앞섰다. 그는 별말 청년들과 공장 종업원들을 긴급히 소집하여 ‘선경 치안대(鮮京治安隊)’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곧 공장 사택으로 달려가 스스키사부로 공장장과 협의해, 직물공장 수위실을 치안대 사무실로 쓰기로 하였다.

선경치안대가 하는 일은 우선 공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비록 일본인 소유의 공장이긴 했지만, 수많은 조선인 종업원들의 밥줄인 귀중한 일터이기도 했던 것이다. 최종건은 혹시 조선인 종업원들이 평소의 앙심을 품고 일본인 간부들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경치안대 대원들에게 공장 기숙사에 있는 일본인들의 인명과 재산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덕분에 당시 공장에 있던 일본인들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채 사태의 변

화만 주시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11일에는 조선총독부의 아베(阿部) 총독이 파면되면서 북위 38선 이남에 미군정(美軍政)이 실시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일본인들도 본토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최종건은 선경치안대를 동원, 공장에 있던 일본인들이 무사히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때 그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공장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는데, 치안대장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그는 나중에 공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제외하고 종업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선경직물을 운영하던 일본인들이 본토로 떠나고 나서도 공장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 최종건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공장이기 때문에 적산(敵產)에 속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일해 온 조선인 종업원들의 일터라는 점에서 선경치안대로 하여금 철저하게 지키게 했던 것이다.

최종건은 우선 선경직물을 지켜 자신들의 일자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었고, 자칫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을 보호해주었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인들이 득세할 때는 꼼짝 못하다가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궁지에 몰린 그들을 발길질하는 역전 건달들보다, 오히려 넓은 아량을 베푸는 최종건이 한 수 위였던 것이다.

* 담연의 성공철학

-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궁지에 몰렸을 때는 관용을 베풀어라.
- 정의와 신의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은 위기에 더욱 진기를 발휘한다.

휴식은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다

– 여자 종업원들을 위한 한글 교육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잔다. 즉 일과 휴식의 반복이 사람의 삶인 것이다.

여기서 휴식의 의미는 그냥 쉬다는 것이 아니다.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다. 낮에 땀흘려 일을 열심히 하면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다. 이러한 일과 휴식의 반복 과정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선경직물을 경영하던 일본인들이 떠나고 공장은 기계를 멈춘 채 조용하기만 하였다. 당장 주인이 없어졌으니 선뜻 누가 나서서 공장을 돌리자고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자금이 없으니 인견사를 구할 수도 없었고, 공장을 돌리기 위해 원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더더구나 어려운 일이었다. 일본이 패망해 인견사 공급이 거의 중단되어 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최종건은 공장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공장을 돌리지 않아 기계들이 녹슬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우선 공장을 돌려야 선경직물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생계가 보장되기 때문이었다.

종업원들은 모두 최종건이 어떤 조치를 내려주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키사브로 공장장이 일본으로 떠날 때, 한국인 중에 선경직물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다.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선경직물의 한국인 주주는 오래 전부터 선민주단에서 근무해온 황청하(黃淸河)와 김덕유(金德裕)라는 사람이었다. 일제치하에서 조선에 신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명목상으로 조선인 주주를 세워야 했다.

그런 이유로 선경직물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선민주단에 근무하던 황청하와 김덕유에게 주식을 배당한 바 있었다. 당시 두 사람에게 배당된 주식은 각각 100주로 선경직물 전체 주식의 2,500분의 1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해방이 되어 선경직물의 경영권을 쥐고 있던 일본인들이 물리가고 나자, 겨우 100주씩 가지고 있는 소액 주주들이지만 황청하와 김덕유 두 사람의 권한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다. 최종건은 일단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선경직물은 설립 당시 선만주단과 일본의 교토직물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이니, 어차피 선만주단과는 끈끈한 연결고리를 맺고 있었다.

당시 선만주단의 사무실은 서울시 종로구 1정목에 자리잡고 있었다. 최종건은 서울로 올라가 황청하와 김덕유 두 주주를 만났으나, 그들은 선만주단에 만 관심이 있을 뿐 선경직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입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해방이 되자마자 남성산업(南星産業)을 설립하고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선만주단을 개편하는 등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이미 황청하는 선만주단의 대표취체역(代表取締役) 사장에, 김덕유는 취체역 전무에 취임해 있었던 것이다.

누구보다도 선경직물의 정상가동을 원했던 최종건은 황청하와 김덕유 두 주주의 허락을 받아 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 관망하는 상태에서 두고 보자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황청하와 김덕유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최종건을 은근히 부담스러워 했다. 주주도 아닌데 왜 앞에 나서서 설치냐는 듯한 눈치를 주는 것이다. 결국 그는 협결음만 하고 수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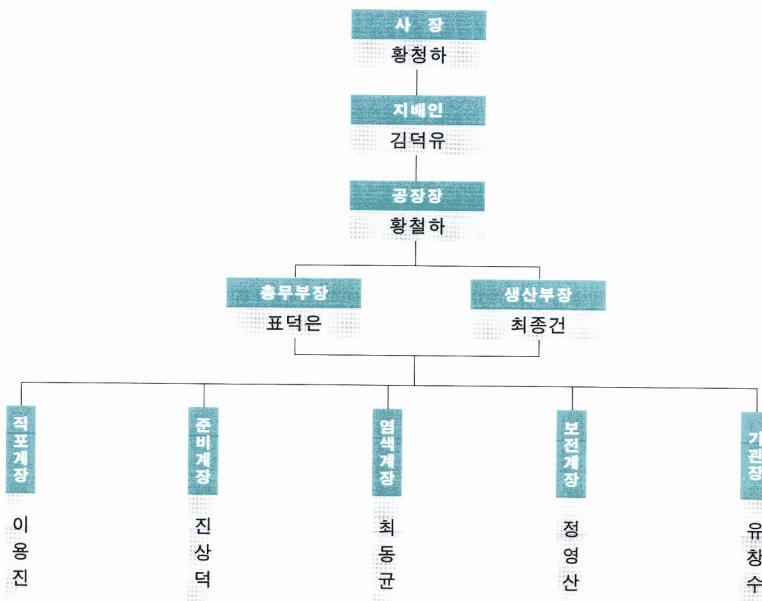
1945년 11월 11일 선경직물은 적산으로 지정되면서 미군정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그 해 12월 미군정은 적산관리요령(敵產管理要領)에 의거하여 선경직물 공장관리인으로 황청하와 김덕유 두 사람을 위촉했다. 미군정에서도 그들이 선경직물의 주주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장관리인이 된 황청하와 김덕유도 이제 더 이상 선경직물을 방치해 둘 수가 없었다. 그들은 곧 공장 간부들에게 직급을 주어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하였다.

우선 사장은 황청하가, 지배인은 김덕유가 맡았다. 그리고 황청하의 동생 황철하(黃哲河)를 공장장으로, 김덕유의 생질 표덕은(表德恩)을 총무부장에 임명하였다. 또한 생산부장 최종건, 직포계장 이용진, 준비계장 진상덕, 염색계장 최동균, 보전계장 정영산, 기관장 유창수 등을 정식으로 발령하였다.

이때 황철하나 표덕은 두 사람은 한두 번 얼굴을 내비친 뒤 공장에 잘 나타

〈표〉 적산관리요령에 의거한 선경직물 조직도



▼ 선경직물 직원들과 함께 아유회를 간 최종건. 특히 그는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 노력하였다.(앞줄 왼쪽 첫 번째가 최종건)

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공장을 가동시켜 조업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생산부장 최종건이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선경직물은 1946년 2월 본격적인 조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반 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기들은 모두 녹이 슬어 있어서, 최종건은 그 기계들을 하나하나 손수 점검하고 수리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이렇게 해서 1946년 9월부터는 직기 100여 대가 전부 가동되었다. 이때 선경직물에서 생산하는 인조견 안감은 주로 양복점으로 팔려나갔다.

당시 인조견 안감은 양복점에서 마름질을 하는데, 먼저 물에 담갔다가 말린 다음 다림질을 해서 썼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겉감인 양복 기지보다 안감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선경직물에서 나오는 안감은 물에 적시지 않고 그냥 다림질을 해도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질이 좋았다. 선경 안감은 인기가 좋아 공장에서 짜내는 대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인조견 이외에

주자, 아랑주도 만들어 팔았다. 아랑주는 밀양의 아랑 전설에서 붙인 제품명이었다.

1947년에도 직물업계의 호황은 계속되었다. 해방 이후 물자부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선경직물에서 짜내는 인조견 안감은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작업반을 주·야간으로 편성하여 공장을 24시간 가동했다.

그런데 1948년 5월 15일 북한이



▼ 해방 직후 선경직물 직원 단체
사진.(맨 뒷줄 오른쪽 첫 번째
가 최종건)



예고도 없이 송전(送電)을 중단해 버렸다. 전력이 공급되지 않자 당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남한의 공장들이었다. 특히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했던 호황기에 직물업계가 입은 타격은 어느 업계보다 클 수밖에 없었다.

선경직물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장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자, 수시로 전기가 끊겨 기계를 멈출 때가 많았다. 최종건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되면 종업원들에게 기계를 닦거나 공장 내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 종업원들도 더 이상 청소할 것이 없어 빈둥대기 시작했다.

“용진아! 네가 여자 종업원들 한글 교육 좀 시켜라.”

최종건은 직포계장을 불러 말했다. 그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직급보다 이름을 불렀다. 이용진은 직접 조수로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친근감이 더했다.

당시 공장의 여자 종업원들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공장에 전기가 나갈 때면 그 시간을 이용해 한글을 깨우치도록 한 것인

데, 이용진 역시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최종건은 생각다 못하여 회사 자금을 변통하여 당시 서울농대에 다니던 학생을 하나 데려다 한글을 가르치게 했다.

그러는 한편, 최종건은 시급히 자가발전설비를 갖추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49년 초에는 1947년 호황기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조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최종건이 공장에 전력 공급이 중단될 때마다 그 시간을 이용하여 여자 종업원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킨 것은 시테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의 낭비야말로 돈의 낭비보다 더 아까운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돈을 주고 강사까지 데려다 여자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재충전의 기회를 주었다.

일이 없으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나태해지기 마련이다. 긴장감이 풀어져 다시 일을 시작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일요일에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면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도 그만큼 긴장감이 풀어졌기 때문이다.

최종건이 여자 종업원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킨 것은 재충전을 위한 목적으로 있었지만, 공장의 전력 공급 중단을 평계로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여자 종업원들을 긴장시키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던 것이다.

* 담연의 성공철학

- '시테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에겐 남는 시간이란 없다.
- 실패하는 사람은 휴식을 취하며 나태해지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휴식을 재충전의 기회로 이용한다.

결단은 칼처럼, 행동은 화살처럼!

- 결혼과 사표

‘기회’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버리는 것이다. 만약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놓쳐버리고 만다면 차라리 그 기회가 오지 않으니만 못하다. 기회가 왔을 때는 칼처럼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결단만 하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다시 바람처럼 사라지고 만다. 일단 결단을 했으면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 행동은 빠를수록 좋으며, 화살이 과녁을 향해 날아가듯 반드시 목표를 향해야 한다.

‘결단은 칼처럼, 행동은 화살처럼!’

이것은 최종건의 행동 철학이다.

1949년 봄, 최종건의 나이 24세 때였다. 아버지 최학배 공은 큰딸과 큰아들을 함께 앉혀놓고 말하였다.

“너도 이제 장가들 나이가 됐다. 네 둘째누이가 참한 색시를 봐두었다고 하니 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거라.”

아버지의 말에 최종건은 퍼뜩 정신이 들었다. 선경직물에 입사한 후 정신 없이 일만 하다보니 자신의 나이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무렵 이미 나이가 찬 첫째 누이 최양분은 최종현의 가정교사였던 표현구와 결혼했고, 둘째 누이 최양순도 수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경기도 용인군 송전으로 시집을 간 뒤였다. 그러니 다음 차례는 최종건이었다.

“왜?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최학배 공은 다시 큰아들을 다그쳤다.

“네,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최종건은 그제서야 대답을 하였다. 사실 그는 결혼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이 없는 편이었다. 결혼은 그저 나이가 차면 하게 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그의 생각은 오직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선경직물에 입사한 이후 6년 동안 그는

▼ 24세의 최종건과 노순애 여사의 결혼식. 일에 몰두하느라 나이를 먹는 것조차 몰랐던 청년 최종건은 결혼과 함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 속에 파묻혀 살았기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에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러면 양순이가 봐둔 색시감은 양분이 네가 가서 보고 오너라.”

최학배 공은 큰딸에게 최종건의 색시감 고르는 일을 맡겼다.

최양분은 곧 동생 최양순이 시집간 경기도 용인군 송전으로 떠났다. 신부 감은 송전 저수지 근처에 있는 중벗뜰이란 마을에 살고 있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인군 남사면(南四面) 방아리(防牙里)였는데, 그 마을 교하(交河) 노씨(盧氏) 댁 규수 노순애(盧順愛)였다.

노순애를 만나본 최양분은 조용하고 얌전한 태도가 우선 마음에 들었다. 만며느리감으로는 아주 그만이었던 것이다.

“색시가 아주 참하네요. 종건이 색시감으로는 안성맞춤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최양분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럼 됐다!”

최학배 공은 큰딸의 판단을 믿었다. 최종건도 두말 하지 않고 누이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다. 일단 이렇게 결론이 나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한 최종건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서 비로소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된 것이었다. 입사 이후 6년 동안 애정을 쏟아 부은 선경직물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회사가 아니었다. 부장의 직무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이긴 해도 엄밀히 따지면 그는 한낱 월급쟁이에 지나지 않았다.

“나도 이제 내 사업을 할 때가 왔다!”

최종건은 선경직물에 사표를 내기로 결심하였다. 자리에 불만이 있어서 그만두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직급은 생산부장이지만 그는 공장장 이상의 실

권을 쥐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사표를 내려는 것은 비록 직기 한두 대를 돌리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자기 회사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최종건은 일단 무슨 일이든 결심을 하면 곧바로 행동에 옮겨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그는 자신이 일단 옳다고 판단을 내리면 누가 말려도 듣지 않았다. 그에게는 실행만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최종건이 회사에 사표를 내고 돌아오자, 아내가 근심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당신 마음대로 사표를 내면 어떡해요?”

“걱정 말아.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리한 것이니까.”

최종건의 단정적인 어투에 아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였다.

다음날 최종건이 사표를 낸 사실이 집안 식구들에게 다 알려졌다. 최학배 공이 그를 사랑으로 불러들였다.

“네 나이에 생산부장이면 출세한 거다. 왜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느냐?”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나 하며 살 수는 없질 않습니까?
앞으로 제 사업을 해볼 참입니다.”

최종건은 자신감 있게 말하였다.

“사업이 어디 한두 푼으로 되는 일이더냐?”

우선 최학배 공은 사업자금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장사도 밑천이 있어야 하지.”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금으로 옷감장사부터 해 볼 생각입니다.”

최종건의 딱 부리지는 성격을 아는 최학배 공도 더 이상 기타부타 말이 없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누구도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칼처럼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앞뒤 재보지 않고 내리는 것은 무모한 결단이다.

그러나 최종건은 어떤 결단을 내리기에 앞서 이미 많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 했다. 외부로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내심으로는 수많은 모래성을 쌓았다 부수 었던 것이다. 그리고 확신이 서면 그 결단을 표면화시키고 곧 행동에 돌입한다.

막았던 터놓는 물은 폭포수처럼 떨어져 내린다. 최종건이 결단을 내림과 동시에 행동에 옮기는 것은 마치 막았던 물을 터놓는 물살의 세기에 비유될 수 있다. 이미 그는 마음 속으로 앞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 담연의 성공철학

- 준비된 사람은 결단도 빠르다.
- 자신감은 경험의 축적에서 나온다.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 일석이조의 인견사 장사

장의 흐름은 사람의 혈맥과 같다. 어느 한 곳 혈맥이 막히면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장의 흐름도 어느 한 곳이 막히면 동맥경화증이 일어나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

시장은 흘러가는 물처럼 쉼없이 흘러가야 한다. 물이 넷가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 빗물로 떨어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듯이, 계속적인 순환이 이루어져야만 시장 질서가 제대로 잡힌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알면 돈이 어느 곳에 모였다가 어느 곳을 경과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 제품을 만들면 상인들에 의해 소비자에게로 전달된다. 즉 제조업자와 시장 상인과 소비자의 유통 구조가 시장 흐름의 기본이다.

강철왕 카네기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노동, 자본, 지략 중 무엇이 사업을 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카네기가 되물었다.

“다리가 세 개 달린 의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자에 앉을 때 어떤 다리가 가장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카네기는 의자의 다리를 비유로 들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 자본, 지략 세 가지 다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이다.

경제의 조건도 마찬가지다. 제조업자는 물건을 잘 만들어야 하고, 시장 상인들은 그것을 적정한 가격에 잘 유통시켜야 하며, 소비자는 그것을 사서 일상 생활에 유용하게 써야 하는 것이다.

기술자 출신으로 직물업계에 들어와 생산을 담당한 최종건이지만, 그는 생산뿐만 아니라 시장 구조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공장을 정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원사를 적정량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익혀두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인 것이다.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그렇다고 최종건이 무작정 사표를 던진 것은 아니었다. 선경직물에 있으면서 그는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읽고 있었다. 당시 직물공장에서 쓰는 인견사는 주로 무역상들이 수입해 오는 이탈리아산이었다. 규모가 큰 직물공장에서는 무역상과의 직거래가 가능했지만, 작은 규모의 공장에서는 대부분 원사 도매상을 통해 한두 고리(樞) 단위로 사서 쓰던 실정이었다.

최종건은 선경직물 생산부장으로 있으면서 인견사 때문에 여간 골머리를 앓은 것이 아니었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얼마든지 인견사를 들여다 썼기 때문에, 원사가 모자라 직기를 놀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일본에서 인견사를 들여오기가 어려워지자 홍콩을 통해 수입을 하게 되었다.

미군정이 끝나고 민정이 실시되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제품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시켰다. 일본으로부터의 직수입이 곤란해지자 무역상들은 홍콩을 통해 인견사를 들여왔는데, 대부분이 이탈리아산이었으며 개중에는 일본 제품을 다른 외국 상표로 바꾸어 들여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홍콩을 통해 인견사를 들여오다 보니 값이 비쌌으며, 수입해 오는 양에 따라 가격도 들쭉날쭉하였다. 무역상들이 인견사를 많이 들여올 때는 값이 떨어졌고, 그렇지 못할 때는 비싼 돈을 주고도 원사를 구하지 못하여 직기를 놀릴 판이었다. 더구나 규모가 작은 직물공장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시중에 인견사가 많이 나돌 때도 여유 있게 구입하지 못해 항상 원사를 모자라 조업을 중단해야 할 지경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부 원사 도매상들이 매점매식을 하여 폭리를 취하곤 하였다.

최종건은 인견사의 유통망을 잘 알고 있었다. 1949년 가을부터 그는 퇴직금을 받아 인견사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는 선경직물에 있으면서 안면을 익혀온 무역상이나 도매상들을 상대하였는데, 퇴직금 가지고는 장사 밑천이 모자랐으므로 주로 신용으로 외상거래를 하였다.

“최부장이라면 얼마든지 물건을 대주지.”

도매상들은 최종건을 믿고 외상으로 인견사를 내주었다.

이 때 최종건은 ‘신용’의 중요성을 알았다. 이해타산을 따지는 상인들 사이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신용이었던 것이다. 돈은 한갓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에 불과하지만, 신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아교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 끈끈한 정이야말로 돈을 주고 도 살 수 없는 재산이 아닐 수 없었다.

최종건은 작은 직물공장을 대상으로 인견사를 대주고, 그 원사로 짠 직물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수하여 동대문시장 포목 도매상에 넘기곤 하였다. 그는 선경직물 생산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동대문시장 포목 도매상들과도 잘 통하던 사이였다. 그러므로 원사 시장뿐만 아니라 직물 시장도 두루 뛰뚫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걸음에 원사와 직물 두 가지 장사를 하는 셈이니 일석이조(一石二鳥)가 아닐 수 없었다.

장사를 하면서 최종건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돈 버는 일보다 사람 사귀는 일이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란 사실을, 그는 선경직물에 근무하면서 빼저리게 느낀 바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사귈 때 한 가지 철학을 갖게 되었다. 우선 처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확실한 인상을 심어주도록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믿음을 갖게 만드는 일이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종건은 남다른 기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일단 처음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일로 상대를 도와줄 것인가 골몰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상대를 돋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신이 먼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을 상대에게 소개할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서로 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해줌으로써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이같은 인맥관리 방법을 통하여 최종건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확실한 ‘믿음’을 얻어냈다.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그의 장사 밑천이었던 셈이다.

* 담연의 성공철학

-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으로 하는 것이다.

꿈은 나무처럼 자란다

– 열한 고리의 인견사

네 텔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꿈이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꿈을 심겠다는 것이다.

꿈을 가진다는 것은 마음 속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다. 마음의 화분에 나무를 심어 놓고 매일 정성껏 물을 주면 그것이 가지를 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꿈은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난다.

최종건은 인견사 장사를 하면서 직물공장을 세울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 그는 장사를 시작한지 1년 만에 인견사 열 고리 값이 넘는 돈을 벌었다. 당시 인견사 한 고리에 보통 쌀 열 가마니 값이었으니, 그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린 셈이었다. 당시 생산부장 월급이라야 쌀 두 가마니 값이 채 안 됐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최종건은 용기가 불끈 솟았다. 한 해만 더 장사를 잘하면 작으나마 직기 두어 대를 가진 직물공장을 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1950년 6월 24일, 최종건은 그동안 번 돈을 끌어모아 목돈을 만들어 서울로 향했다. 직물공장의 경우 여름은 비수기였다. 그러므로 이 때가 되면 인견사 값이 떨어지게 마련이었다. 그는 값이 쌀 때 인견사를 사 두었다가 비수기 가 지나 직물공장이 바쁘게 돌아갈 때 원사를 비싸게 팔아 이득을 남기려는 것 이었다. 더군다나 해방 이후 계속되는 인플레이의 영향으로 물가가 오를 줄만 알았지 내릴 여지는 없었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인견사를 많이 사 둘수록 이득이었다.

최종건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무역상을 찾아가 인견사 열한 고리를 사서 창신동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수원으로 내려왔다. 그는 가슴이 뿌듯했다.

“잘만 하면 올 가을에 곱장사는 할 수 있겠군!”

최종건은 꿈에 부풀어 있었다. 큰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지금은 비록 작은 꿈에 불과하지만, 그 꿈을 키우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직기 한두 대를 들여 놓고 직물공장을 차리는 것이 그의 작은 꿈이라면, 그것을 키워 직물업계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그의 큰 꿈이었다.

단순한 생각이지만, 최종건은 꿈이 나무처럼 자란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가슴 속에 작은 꿈을 심어 놓고 매일 물을 주었다.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 기만을 빌면서 열심히 꿈의 땅에서 자갈을 골라내고 거름을 뿐렸던 것이다. 그는 농부의 아들이었다. 기업을 일으키는 것은 농부가 봄에 밭을 갈아 씨를 뿐 리고, 여름내 김을 매고 가꿔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서울에 올라가 열한 고리의 인견사를 사서 창고에 보관하고 돌아온 날 밤 최종건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 날 밤 그는 직물공장을 수십 번 지었다 부수고 또 다시 짓곤 하였다. 그의 상상 속에서는 처음 한두 대의 직기가 열 대가 되고, 열 대가 다시 오십 대로 늘어났다. 이렇게 점점 직기가 늘어나자 제2공장, 제3공장, 제4공장으로 상상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최종건은 라디오 뉴스를 듣고 처음에는 별반 놀라지 않았다. 뉴스 시간마다 귀를 기울였으나, 국방부장관의 담화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은 국군이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국민은 동요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난 6월 27일 라디오 뉴스는 정부가 난데없이 수원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국군이 밀리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었다. 최종건은 그 날 오후 1시경 급히 서둘러 서울로 갔다. 창신동 창고에 보관

해 둔 인견사가 걱정되었던 것이다.

서울 거리는 피난민의 행렬로 넘치고 있었다. 피난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인민군들이 벌써 의정부 시내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곧 서울도 함락될 것이라며 그들은 서둘러 남쪽으로 향했다.

최종건은 종로에서 창신동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피난민들 때문에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자, 인견사고 뭐고 서둘러 수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서울이 점령된다면 창신동 창고에 보관해 둔 인견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최종건은 피난민을 따라 수원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그 걱정부터 하였다. 간밤에 쌓아올린 꿈이 하루 만에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최종건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 최학배 공이 근심어린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옆에 동생 최종현도 앉아 있었다.

“곧 인민군이 수원에도 들어닥칠 모양이다. 너희들은 짚으니까 그들에게 붙잡히면 험한 꼴을 당할까 무섭구나. 우선 팔탄으로 내려가 있거라.”

최학배 공은 두 이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인민군한테 잡혀갈 행동을 한 게 없는데, 뭐가 두려워요?”

최종건은 아무래도 열한 고리의 인견사가 눈앞에서 아른거려 피난 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는 좌익 사람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편이 아니냐?”

최학배 공이 걱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큰아들이 해방 이후 우익 단체에서 활동을 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

“수원에서 우익 활동 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아무 말 말고 내 말에 따르는 게 좋

겠다. 나도 같이 갈 테니 어서 준비하거라.”

최학배 공은 두 아들만 피난을 보내는 것이 미덥지 못했던 것이다. 팔탄면 해창리는 그의 고향이지만, 먹고 자는 걸 해결하려면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형! 그렇게 해요.”

당시 최종현은 수원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서울농대 화학과에 들어간 신입생이었다.

결국 최종건은 동생까지 거들고 나서자 같이 피난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인견사 열한 고리를 사놓고 기업을 일으킬 거대한 꿈에 부풀었던 최종건은 하루 아침에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만약 전쟁으로 인하여 인견사 열한 고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그의 마음 속에 자리잡은 꿈은 사라질 리 없기 때문이었다. 그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리 극심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마음의 화분에 심은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었다.

* 담연의 성공철학

- 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 마음 속에 꿈을 심어 놓으면 도둑맞을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절망할 필요 또한 없다.

은혜는 되로 주면 말로 돌아온다

- 구사일생으로 건진 목숨



람의 정이란 은행의 통장과도 같다. 오랜 세월이 흐를수록 이자에 이자 가 붙어 목돈으로 불어나는 것이 은행통장인데, 사람의 정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두터워져 더욱 돈독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오래 전에 되로 준 정이 말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정은 돈과 달라서 마음만 있으면 베풀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을 베푸는 데 인색하다. 아니 베푸는 방법을 몰라 자기 마음 속에 꽁꽁 묶어 두고 있다. 돈이란 꽁꽁 묶어 두면 자기 것이 되지만, 정은 꽁꽁 묶어 둔다고 해서 결코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정이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비로소 자기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최종건은 마음을 활짝 열어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정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정을 베풀어 주고 나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구사일생으로 귀한 생명을 얻은 후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거래는 돈이 아니라 정이라는 것이다. 돈은 되로 주고 되로 받지만, 정은 되로 주면 말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는 체험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최종건이 동생 최종현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피난을 간 팔탄면 해창리에는 그때까지도 가까운 친척들이 여러 집 살고 있었다. 그래서 먹고 잠자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해결되었다.

매일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직성이 풀리던 최종건은 먹고 잠만 자는 나날이 계속되자 도무지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다. 더구나 인민군들이 수원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아버지는 그에게 방안에 숨어서 꼼짝하지 말라고 신신당부 하였다.

수원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최종건의 둘

째 남동생인 최종관이 해창리로 아버지와 형들을 찾아왔다.

“그래, 수원 집은 어찌 되었느냐?”

최학배 공이 셋째아들에게 물었다.

“말도 마세요. 인민군이 우리집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구요.”

“뭐? 우리집을? 그럼 직물공장은?”

이번에는 최종건이 물었다. 퇴직을 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그는 선경직물을
걱정하고 있었다.

“직물공장은 인민군 본부가 됐어요. 그러나저러나 내무서에서 큰형을 찾
으러 왔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이 곳으로 보낸 거예요. 큰형이 여기 와
있는 걸 어쩌면 동네 빨갱이들이 알지도 모르니 어디 먼 곳으로 피하래요.”

최종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태가 아주 심각했다. 벌써 우익 단체에 가
담했던 수원의 청년들이 내무서에 잡혀가 고초를 당하고 있으며, 평동에서도
의용군으로 끌려간 청년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이었다.

그 날부터 최종건은 다른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두문불출하고 지냈다. 해창리만 해도 시골이기 때문에 인민군이
나 내무서원들의 발길이 뜯해 숨어 있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

그러나 8월 중순 무렵, 팔탄면 내무서에서 최종건이 숨어 있는 친척집을
급습했다. 알고 보니 그 동네 좌익 청년들이 밀고를 한 것이었다.

최종건은 곧 팔탄면 내무서로 잡혀갔고, 거기서 다시 수원 내무서로 압송
되었다. 내무서의 분위기는 험악했다. 먼저 붙잡혀 온 우익 청년들 중에는 인
민재판을 받고 총살당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었다.

해방 직후 최종건은 수원 태백문화동지회 부회장과 평동 대동청년단 단장,
선경치안대 대장을 맡은 적이 있었다. 모두 우익 단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공

산당들이 말하는 '악질 반동분자' 가 될 만큼 우익 활동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

수원 내무서에 잡혀온 우익 청년들은 모두들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최종건은 크게 겁을 먹지 않았다. 아무리 공산당이라 하더라도 죄가 별로 없는데 큰 형벌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내무서원들은 최종건을 유치장에 가두고, 매일 불러 내어 취조를 하였다. 취조실은 살기 등등했다. 그들은 바른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책상을 텅텅 내리치며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종건은 태연했다. 크게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담담했다. 아니 그는 속으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록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었다. 담담한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마음 속에서 불끈 힘이 솟아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싸움을 할 때도 먼저 겁을 먹는 법이 없었다. 평상시보다 마음이 더 담담해지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먼저 기 싸움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그것으로 승부는 끝나게 되어 있었다.

내무서원들은 억지를 써서라도 최종건을 반동으로 몰아 붙이려 했다. 그러나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천성적으로 남한테 못할 짓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뭐야? 변명하지 마라. 다 증거가 있으니까.”

내무서원은 그러면서 조서철을 불쑥 내밀었다. 그 내용을 읽어 보니 누군가가 최종건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놓은 것이었다. 모두가 날조된 내용들이었다.

“이건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이건 조작된 거라구요!”

최종건은 내무서원을 향해 항의조로 말했다.

“뭐라구? 너 같은 반동분자는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

내무서원은 조서철을 책상 위로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수원 내무서 유치장에 갇힌 지 한 달이 넘은 어느 날이었다. 팔뚝에 붉은 완장을 두른 사람이 최종건을 불러 냈다.

“최종건 이리 나왓!”

붉은 완장을 두른 사람은 이성길이었다. 최종건도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성길은 해방 직후 아무 것도 모르면서 친구가 권하는 바람에 남로당에 가입했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있었다. 그때 최종건은 신원보증서까지 써서 그를 빼내 평동 대동청년단 총무직을 맡겼었다. 그런 사람이 전쟁이 터지자 붉은 완장을 두르고 좌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최종건이 유치장 문을 밀고 나오자, 이성길은 수갑을 철컥 채우며 다짜고 짜 따귀를 한 대 올려붙였다.

“이 반동분자 새끼야! 넌 당장에 총살감이다!”

이성길은 따발총으로 최종건의 옆구리를 찌르며 어디론가 끌고 갔다.

그 순간만큼은 최종건도 잔뜩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담담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죽음이 임박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몹시 초조해졌던 것이다.

이성길은 최종건을 끌고 내무서 건물 밖으로 나왔다. 아무도 없는 외진 곳 까지 왔을 때였다.

“이발이나 하고 어서 집으로 가!”

이성길은 최종건의 손목에서 수갑을 풀어주며 백 원짜리 지폐 몇장을 쥐어 주었다.

“아니…?”

최종건은 지폐를 손에 쥔 채 머뭇거렸다.

“아무 말 말고 어서 여길 빠져나가! 지금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밤 안으로 다 죽는단 말야!”

이성길은 그러면서 최종건의 등을 떠밀었다.

그때서야 최종건은 이성길이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빼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종건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수원 내무서 유치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인민군들에게 끌려 북으로 가다가 안양천변에서 총살당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만약 이성길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던 것이다.

이때 최종건은 사람의 마음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다. 한 때 아무 대가 없이 상대에게 신원보증을 해 준 것뿐인데, 그것이 죽음 직전에서 자신을 구해내는 기적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치 못했던 것이다.

* 담연의 성공철학

- 위기 앞에서는 오히려 담담한 마음을 가져라. 침착함 속에서 슬기와 용기가 발휘된다.
- 작은 선행(善行)이 기적을 일으킨다.

건국치안대와 선경치안대의 설립 배경

1945년 세계 제2차대전의 말기에 접어들면서 일제가 태평양전투와 동남아전투에서 패전을 계속함에 따라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던 조선총독부는 본국의 지시가 없었지만 나름대로의 정세판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패전 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종전과 더불어 조선총독부의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국내 질서의 유지보다는 국내에 들어와 지배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던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안전한 귀국이었다. 따라서 해방과 더불어 도래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총독부가 독점하고 있던 행정권과 치안권과 같은 권력의 일부를 한국인에게 이양하여 일종의 자치행정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게 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총독부는 국내의 유력한 정치지도자 중에서 송진우, 안재홍, 여운형 등 3인을 지목하고 이들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총독부는 먼저 8월 10일부터 4차례에 걸쳐 송진우와의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송진우의 거절로 실패하고, 결국 여운형과의 교섭을 통하여 정권이양 문제를 상의하였다. 여운형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조건을 제시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행정권을 이양받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여운형은 15일 아침 엔도 정무총감과의 회담 이후, 신정부 건설의 의지를 표명하고 안재홍의 협력을 받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여운형은 8월 15일 건국동맹원을 정식으로 소집하여 장권으로 하여금 치안대를 조직도록 지시하고 이정구에게는 식량대책 위원회를 소집토록 하였다.

건준은 16일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날 아침에 건준의 활동을 알리는 전단을 인쇄하여 서울 지역에 살포함에 따라 건준의 활동이 서울 시내에 알려지자 오후에 건준본부가 있는 계동으로 많은 수의 청년,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이에 여운형은 오후 1시경 건준본부 건물 옆에 있던 휘문중학교(현재 현대그룹 사옥부지) 운동장에 모인 5천여 군중 앞에서 건준이 조직되게 된 경위와 치안대가 각 지역별 및 직장, 중요기관별로 조직되어 배치되고 있음을 알리고 패망한 일본인에 대해서 아랑을 보일 것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최종건은 벌말 청년들과 공장 종업원을 긴급히 소집하여 공장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경치안대'를 조직하였던 것이다.